

선유리는 매일매일

2017 / 정기북부마을아카이브프로젝트 / 파주 선유리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과 북을 잇는 관문이자 분단의 접경지역이다. 군부대, 개발제한 등 접경지역의 특성과 그로 인한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지닌 곳으로 마을단위의 기록조사와 아카이브 등 지속가능한 문화적 지역접근이 요구된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의 기록보존과 정체성 구명, 문화적 지역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본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직접적 영향이 잠재된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였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내재 여부, 낙후되고 쇠락한 마을, 회복기회나 계기가 없어 소외된 마을, 내·외부 변화로 인하여 아카이브가 시급한 마을, 향후 마을재생사업이 필요한 마을을 기준으로 지역관계자의 추천과 의견을 받아 기준에 부합한 마을을 1차 선정한 후 두 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3곳의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그 마을이 동두천 텃거리, 연천 신망리, 파주 선유리이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작가와 기획자가 3곳의 마을에서 각자의 예술적 시선으로 마을의 맥락에 맞춰 아카이브를 진행하였다. 아카이브의 내용은 마을의 환경 기초조사, 내·외부 변화 양상 기록,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그리고 지역맞춤 마을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까지 포함한다. 방식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구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워크숍 등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결과물은 텍스트, 사진, 영상과 녹취 형태로 기록되었다.

아카이브의 방향과 방식은 개별 마을의 특성과 환경, 작가와 기획자의 시선에 따라 자율적이고 실험적으로 열어두고 진행하였다. 마을환경에 부합하는 현장감 있고 자유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기북부에서 첫 시도된 접경지역 마을 대상 예술기반 마을아카이브 방향과 방식을 확장하고 문화적 지역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자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같고도 다른 우리 이웃의 삶의 기록을 공유하고자 한다.



독서율4길
60





들어가며

<선유리는 매일매일>은 2017년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북부의 파주시 문산을 선유리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적 마을 리서치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을을 이제 서야 알게 된 현대미술가와 주소지는 달라도 이미 마을 주민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주축이 되어, 선유리에서 수십년을 자리해 온 어떤 분식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한 마을에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여성들을 만나, 이들을 지켜보고, 듣고, 돕고, 이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상상하고, 창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매일매일 선유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작은 사건과 이야기가 때로는 굵게 쓰여진 거대한 역사에 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매일매일’이라는 단어를, 한 시인의 시집¹에서 빌어 왔습니다. 누군가 찾지 않는 그 날에도, 마을과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갈 겁니다.

<선유리는 매일매일>을 작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거점이자 사랑방으로 삼은 이 분식점의 이름은 선유리와 같습니다. 선유리는 미군 기지촌으로 유명합니다. 미군들의 기억 속에 남은 영문명 Sonjuri 또는 Sonyuri. 이곳에는 캠프 게리 오웬(Camp Garry Owen)과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등 미군 기지²와 여가시설 RC4(Recreation Center #4)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분식점 문을 열고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식당에서 그녀와 비슷하게 이 마을에서의 삶을 공유하는 여성들이 모여 끼니와 안식을 찾곤 합니다. 그들은 미군과 생활하고, 연애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혼자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과 관계없이, 한 여성, 한 인간으로서 고민을 안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쌓고 허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픔을 돌봐야 하니, 무척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거나 남겨지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낸 이들의 매일이 모여 선유리라는 마을을 만들어 왔던 것 아닐까요?

선유리는 이제 쇠락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한 때 전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옛길이었고,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던 요충지였던 2차선 도로와 미군이 떠나고 남은 공여지와 단층의 오래된 집들은 많이 낡고 비어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 되면 총총 빛을

1 진은영, 우리는 매일매일, 문학과 지성사, 2008

2 캠프 펠렘(camp pelham) 등 다른 기지와 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는 아파트 단지와 침단을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그 낡은 어두움을 둘러쌌다. 그곳 구석구석을 걸으며 더듬어 멈추어 가며 모은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 문헌 조사는 파주, 선유리, 기지촌, 미군 이전 등 선유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 발간된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다른 예술작품을 언급했습니다. ‘구술 생애사 & 사물/공간의 역사’는 연구자들의 인식처와 질문지가 되어 준 선유리의 분석점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의 기억과 말을 글로 옮기고, 목격한 사물과 공간을 사진과 실측 모델링(modelling)으로 남긴 작업입니다. ‘공간 & 이미지 맵핑 아카이브’는 이렇게 흡사 연구자이자 듣는 자의 태도로 모으고 적고 촬영한 내용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중간 단계입니다.

선유리에서 우리들은 아마 매일매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을, 얼굴을, 위치를 남겨야 하는가? 아니, 지워야 하는가? 파주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도 이들의 역사는 발화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론되는 분량도 매우 적습니다. 수백 쪽이 넘는 수만 자의 글 속에서 두 세 장정도 발견되는 것에 그칩니다. 우리는 이들이 주인공으로 초대되지 못했고, 또 나서지 않은 이유들이 있으리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상상 사이, 넌픽션(non-fiction)과 픽션(fiction) 사이에, 하나이자 여러 인물의 이름 속으로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드러낼 수 있다고 감히 판단했던 선유리의 소소한 물건과 공간, 풍경, 크게 보아 이 모든 사물들은 더욱 목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곧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사물과 공간의 이미지 속에 더해집니다. 이 지원 사업의 시작에서 꿈꾸곤 했던 마을 박물관이, 그 삶의 존재들을 드러내기 조금은 수월하지 않은 선유리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은 사라졌다가도 다시 찾아오듯, 어떤 가능성이 <선유리는 매일매일> 프로젝트의 여정 속에 저장되었길 바랍니다.

2017 <선유리는 매일매일>의 시간축

이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후
마을과 사람들	관계 맺기	기초 문헌 조사	인터뷰, 촬영	글쓰기, 영상편집	관계의 지속	

지도에서 본 선유리













파주, 선유리, 기지촌, 미군 이전 등의 키워드 중심.

기존 문헌의 주요 내용 발췌 및 요약.

기록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수집.

연표 구성.

파주와 선유리의 지리적 관계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 두 강의 흐름이 만나는 도시이다. 동북에서 남서로 향하는 광주산맥과 휴전선 경계 너머 마식령산맥 사이에서 서쪽으로 황해와 맞닿아 있다. 임진강 유역에는 감악산, 칠중산성, 오두산성, 심학산, 월룡산성, 봉서산성 등 산봉우리들이 연결된다. 감악산 정산에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연관시키는 설화에 얹힌 석단, 비석, 우물이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감악무당을 따로 두어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다. 감악산 장군봉에는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 숨었다는 설에서 유래한 바위굴도 있다.

파주는 파해평사, 술이홀, 천정, 칠중, 봉성, 서원 등 시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조선 세조 6년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지명에 고을 주(州) 자를 얻어 파주가 되었다. 조선조 말까지 파주목의 행정 중심지는 파주읍 파주리였으나 1904년 일제가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며 파주군청이 생기면서 문산리로 옮겨졌다. 파주군청은 한국전쟁의 1.4후퇴 후 수복 과정에서 금촌동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민통선 넘어 장단군의 4개면이 1972년 파주시에 편입되었다.

파주의 범역은 동경 127° 01" 에서 126° 41" , 북위 37° 42" 에서 38° 07" 이며 동서 길이 30km, 남북 길이 36km이다. 한반도 내에서 파주는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서울과의 거리는 약 40km정도 떨어져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면적이 넓다. 동쪽으로 양주시, 북쪽으로 연천군과 북한, 남쪽으로 고양시, 서쪽으로 임진강과 사천을 경계로 북한(개풍군), 서남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한다. 서울과 판문점을 연결하는 통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연결된 자유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파주를 경유한다.

선유리는 문산역을 남쪽으로 도라산역을 북쪽으로 하는 중간 지대에 자리한다. 문산역은 경의선 파주 구간 중의 하나 도라산역을 종착으로 한다. 조선시대 전국 6대 간선도로 중 하나였던 의주로 옛길은 선유4리를 지나 관북과 관서 지방을 잇는 뱃길이 시작되는 임진나루까지 이어진다.

파주에서의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

1950년 6.25전쟁 발발 하루 만에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며 파주에 주둔하던 국군 제1사단은 한강을 도하하여 후퇴하고, 국군 일부가 후퇴하지 못하고 감악산에서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96일간 인민군의 점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일 유엔군이 진주하였으나, 1951년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어 12월 31일 중공군이 38선을 돌파할 때 파주 또한 점령된다. 그러나 유엔군의 반격으로 3월 23일 파주는 수복된다. 이후 전선이 파주 북방 임진강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가 휴전을 맞는다.

휴전 이후 1960년대 한반도는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놓인다. 파주는 남한의 최북단이 되어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되고, 전통적인 농촌 사회를 벗어나 크게 변화한다. 문산에는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 대표단 본부가, 용주골에는 미군 휴양 시설이 있었다. 미군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파주로 이주하며 용주골로 상징되는 기지촌이 형성된다. 1971년에는 파주군 11개 읍과 면에 모두 기지촌이 있었고, 등록된 관광업소 74개 중 20여 곳이 용주골에서 운영되었다.

1969년 미국 닉슨(Nixon) 대통령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선언으로 주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고 1971년 문산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기지촌이 잠시 쇠락을 맞으며, 1980년대 파주의 미군 기지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미군 부대 일부가 여전히 주둔했던 1990년대 파주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개정되며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2000년대를 넘어서며 남북 교류 중심지를 겨냥한 통일/안보 관광시설과 출판, 디스플레이 단지 등 새로운 문화/산업시설이 세워진다.



파주의 미군 시설

파주에 주둔했던 미군 시설은 포병부대에서 미군방송 AFKN (American Forces Network Korea) 송출 기지와 레크리에이션 센터 (recreation center) 등 다양했고, 이름과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었다. 그 중 선유리에 있었던 미군 기지인 캠프 펠햄(Camp Pelham)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이름하여 RC #4는 기지에서 일하거나 미군과 관계를 맺는 마을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었다. 미군의 여가 시간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을 통해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등의 음식, 댄스홀 등의 대중문화, 카지노 등의 관광 문화를 마을 사람들 또한 접할 수 있었다.

한국어 웹사이트에 언급된 파주의 미군 시설

캠프 게리 오웬(Camp Garry Owen) - 2004년 반환.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 - 2004년 반환.

캠프 스탠톤(Camp Stanton/H-112) - 2004년 폐쇄.

캠프 에드워즈(Camp Edwards) - 2004년 폐쇄.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 2004년 반환.

캠프 찰리블럭(Camp Charlie Block) - 2007년 반환.

캠프 키티호크(Camp Kitty Hawk) - 구 리버티 벨 기지/보니파스 동쪽 기지 - 2004년 반환.

캠프 펠햄(Camp Pelham) - 휴전 협정에 의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스웨덴의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 기지, 구 리버티 벨 기지/보니파스 동쪽 기지 - 2004년 반환.

캠프 하위즈(Camp Howze) - 2006년 반환.

파평산 관제소 - 1991년 반환.

퇴역미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언급된 파주의 미군 시설

Musan, Paju-ri Camps and Areas (문산읍)

Camp Giant

Camp Jessup (Musan)

Camp Dover

Camp Coleridge

Camp Custer North (Charlie Block)

Camp Custer Middle (Charlie Block)

Camp Custer South (Charlie Block)

Camp Hartell (Charlie Block)

Camp Paine (Charlie Block)

Camp Brown (Paju-ri)

Charlie Block

D-3 (Former 'Freedom Village')

D-6 (Post Engineer Supply Yard)

Sonyu-ri Area Camps (선유리)

Camp Pelham (Camp Garry Owen)

Recreation Center #4

Camp Hunt

Camp Summerall

AFKN (Sonyu-ri)

Camp Rose

Yongju-gol Area Camps (용주골)

Camp Beard

Camp Beaumont

Camp Adams

Camp Rice (Camp Garry Owen)

Camp McMahon Barracks

Recreation Center #1

Pobwon-ni Area Camps (범원리)

Camp Brown

Camp McNair

Camp Hamilton

Camp Knox

Camp Snow

Camp Irwin TAC2 Site36

Camp Warner TAC2 Site36

Artillery Valley Area Camps (파평면 밖고지)

Camp Brittin

Camp Jennings

Camp Sabre

Camp Ethan Allen

Camp Kensington

Camp Sill

Camp HiDay

Camp McIntyre

Rock Mountain

...

달려가 날아다니던 기지촌, 뉴욕으로 불리던 선유리

홍승희³ : 파주는 미군이나 군부대가 많이 주둔했던 지역이어서 기지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지촌이 전후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군부대와 군부대 옆에 있던 기지촌이 동두천에서 철수하면 그곳 인구가 확 줄어들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는데 그런 것과 연관된 이야기, 또는 경제 관련된 문제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과 함께 남북대화, 새마을운동, 통행금지 같은 것도 같은 시기에 포함된 파주의 역사입니다. 수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황의록 : 파주에는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면 거리에 미군이 많았지요. 또 기지촌 주변에 여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 달려가 날아다닌다고 했지요.

3 홍승희: 시인, 한국 시조시인 협회 부회장 등 역임. 황의록: 유학자, 파주노인회 노인대학 학장 등 역임. 김주일: 의사, 현 금촌의원 원장. 이기현: 향토사학자, 파주문화원장 등 역임. 윤종현: 언론인, 서울 언론인클럽 회장 등 역임. 김호기: 교육자, 파주 문예진흥회 회장 등 역임. 파주시지 1권, pp. 293-294

김주일 : 그때 기지촌 여자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1억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회장 격인 책임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버는 돈이 한 달에 1억원입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번 사람들이었어요.

황의록 : 그러니까 달리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했지요.

홍승희 : 결국 그분들이 애국했네요.

김주일 : 그때 파주에 성병진료소가 7군데 있었습니다. 저도 검진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하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500명을 했는데 아주 힘들었지요. 보건소나 다른 병원이 없는 그때 민사치병원 원장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헌병차가 들어오면 검진을 시작했고 끝나면 데리고 갔어요.

이기현 : 그때 성병진료소가 연풍리, 선유리, 파주리, 광탄, 장파리에 있었는데 장파리가 제일 컸어요. 선유리를 뉴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김주일 : 웅담리에도 있었고, 늘노리와 봉일천에도 성병진료소가 있었어요.

윤종현 : 무건리는 없었어요?

김주일 : 거기는 없고, 웅담리에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참 많았네요. 동두천도 굉장히 알려진 곳이지만 파주에 더 많았어요. 규모나 시설도 좋다고 알려졌고요.

홍승희 : 파주가 그런 쪽으로 알려진 지명이었어요. 제가 여자중학교에 입학했던 때의 기억이 나요. 여선생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해서 제가 파주에서 왔다고 했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양공주가 많은 동네 아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하에는 양공주가 전혀 없어서 몰랐거든요. 대학 다닐 때까지 사람들이 파주를 그런 인상을 가지고 봐서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김주일 : 파주 하면 연풍리, 법원리가 그런 쪽으로 유명했어요.

김호기 :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파주에 미군부대가 많기도 했지만,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희망하는 공직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합이 심해서 아무나 못 갔어요. ‘뺨’이 있어야 갈 수 있었지요.

황의록 :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주일 :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깐 뺨이 있어야 갈 수 있었지요.

파주와 선유리, 그 이름과 이코노미의 파사주(passage)⁴

선사시대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에서는 당동리 유적에서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발굴된 것을 비롯하여 옥석리 유적에서 움 유구가, 교하리·주월리·육계토성·선유리·다율리 등지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찾아졌다.
신석기시대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백석리, 교하읍 다율리, 조리읍 봉일천리에서 빗살무늬토기와 간 화살촉 등이 발견됨
청동기시대	문산읍 선유리에서 다수의 민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됨
1899년	파주군읍지(坡州郡邑誌) 면명 칠정면(七井面) 리명 선유동(仙遊洞) (동일 지명 : 뇌조리 선유동)
1917년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 일람 면명 임진면(臨津面) 리명 선유리(仙遊里)
1921년	조선리정 여행 안내 면명 임진면(臨津面) 리명 선유리(仙遊里)
1984년	1월 10일,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광탄면 신산리 등 5개 기지촌 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다.
1989년	내무부 지방행정구역 요람 면명 문산읍(汶山邑) 리명 선유리(仙遊里)
근현대	정부와 파주시는 디스플레이단지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문산 당동과 선유, 파주 월롱 지역에 LCD와 관련된 3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이들 단지가 완성되면 파주는 약 450만㎡(136만 평) 규모의 세계적인 LCD클러스터(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한 곳에 모인 집적단지)가 된다.

산업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1960년대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던 파주로서는 용주골이라는 기지촌 형성으로 그에 필요한 인구가 유입되고, 주류·의류·화장품·가전제품·가구상·미장원·구멍가게 등등이 생겨나면서 상당 부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도 했다.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기지촌 경제에 영향이 컸던 또 하나는 미제 PX물품이다. 지금도 흔히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서울 남대문시장의 미제 물건 주공급처가 1960년대는 바로 문산이었다. 파주에서만 2대째 살고 있는 파주시청 최영호 과장의 기억에 의하면 1968년까지 금촌역에는 3

4 파주시지 2권, pp.106-107

시간마다 1대 꼴로 서울과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 증기기관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십 여분 이상 정차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은 문산 미군부대와 용주골을 통해 흘러나온 PX물품들이 객·화차 밑에 몰래 숨겨져 서울역까지 운반되는 시간으로, 금촌역에는 이 같은 수송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헌병들이 날마다 상주해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빠져나온 PX물품들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PX물품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주로 삼사십 대의 아주머니들로 그녀들이 실어 나른 PX물품들은 남대문 도깨비시장을 통해 서울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1971년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서울의 도심개발과 함께 경기도 성남 등 서울 주변 지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용주골을 구성하던 대부분의 기지촌 역시 새로 개발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⁵

성황당고개를 지나는 의주대로는 문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우측 방향의 농로에 남아 있던 옛길로 들어서는 게 맞으나 지금은 문산 방향으로 곧게 뻗은 대로를 따라 한국통신 앞에서 우측으로 돌아야 한다. 독서당마을이다. 지금은 파주 LCD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옛 농로가 사라졌다. 서작포마을 어귀를 지나던 옛 농로와 독서당 길이 만나는 선유리에 이천(川), 즉 배내가 흐른다. 선유리는 임진나루와 약 2km 정도의 거리이다. 나루터를 지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주막이 형성되기도 했다.⁶

지방산업단지로는 문발 1산업단지(교하읍, 식료 및 조립금속, 가구, 기계장치), 문발 2산업단지(골판지 및 종이 관련 업종 등)와 오산 지방산업단지(조리읍, 인쇄 관련업), 금파 지방산업단지(파평면, 음향, 통신 및 기타 업종), 탄현 지방산업단지(탄현면,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월릉, LCD 제조 및 관련 산업),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선유지구, LCD 관련 부품)가 있다. 선유산업단지(131만㎡) 또는 선유협력단지는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131만㎡의 부지에 조성, 2004년 11월 착공한 LCD 디스플레이 생산 공단이다.

2008년 6월 말 현재 파주에 개설된 재래 상설시장은 모두 8개소이다. 파주시 금촌동의 금촌시장과 문산을 문산리 소재 문산시장, 문산을 선유리의 선유시장, 파주읍 파주리의 파주시장과 파주읍 연풍리의 연풍시장, 법원읍 대능리의 자유시장, 조리읍 봉일천리의 봉일천시장, 광탄면 신산리의 광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문산읍 선유4리에서 적성으로 향하는 길목의 임진 나루를 불과 2km 정도 앞둔 곳이 나루를 건너는 사람들이 모이던 주막거리였고, 파주시 파평면 장마루 부근이 주막거리였다. 판문점이라는 이름도 주막에서 유래되었다. 휴전 회담에 참석

5 파주시지 2권, p.340

6 파주시지 2권, p.129

하는 중공군 대표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 당시 회담 장소 부근에 널빤지로 만든 문이 있던 널문리 주막을 한자로 적은 것이 판문점(板門店)이다. 널문리는 한양과 개성을 오가던 길손들이 술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던 주막거리였다.⁷

전통과 선유리

선유리의 집성촌 : 선유리 안동 김씨(安東金氏) 30~60호 칠정문중파(七井門中派), 선유리 독서 파평 윤씨(坡平尹氏) 7~20호 판도공파 정정공파, 선유4리 부평이씨(富平李氏) 7~15호 통덕공파 세구파

선유리(仙遊里)의 옛 마을 이름⁸ : 본래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 서낭당 밑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칠정면의 창내동, 이천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선유리라 하였다. 예로부터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8선녀가 산봉에서 놀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선유동 · 선율 · 선울 · 선유울이라고도 한다.

가찰매 · 가찰리(加察里) · 가찰말 · 가찰동 : 3리에 있었던 마을. 예전에는 문산 농업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미군 공병대가 들어서 있다.

독서울 · 독설 · 독서동(讀書洞) · 아랫배내 · 하이천 : 4리에 있는 마을. 쌍백당(雙栢堂)이세화(李世華)가 세능에 안장되고 숙종이 이곳을 다녀간 후 주민들의 향학열이 더욱 높아져 서당을 건립하고 독서에 전념하였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선인독서(仙人讀書)’ 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파평면 이천리 배내의 아래쪽이어서 아랫배내 · 하이천 등으로도 불린다.

돈울 · 돈유동 · 돈유리 : 5리에 있는 마을. 예로부터 서울에서 임진나루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조그마한 산으로 마을이 가려져 있어 병자호란 때 청나라 병사가 국도를 지나가면서도 마을이 있는 줄 몰라 돌아갔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버들내(楊川洞) : 4리에 있는 마을. 배내가 흐르는 개울가에 양버들과 미루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별말 · 야촌동 · 들말 : 4리에 있는 마을. 배내 개울이 흐르는 별판 가운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7 파주시지 2권, p.289

8 파주시지 2권, pp.576~578, p.580

봉아골 · 봉송아골 : 3리에 있던 마을. 서원산 아래의 마을로 봉성현(峯城縣)관아 읍지가 있어 ‘봉(峯)’자와 ‘아(衙)’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지금은 문산 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봉유울 · 봉률 : 1리에 있는 마을. 봉미울이라고도 하였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봉황이 놀았다는 곳이다.

새능 : 4리에 있는 마을. 쌍백당 이세화의 묘에 숙종이 참배하러 왔다가 새능(新陵)이라는 명칭을 붙여 준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낭댕이(城隍堂) : 3리에 있는 마을. 선유봉 아래 고갯길에 성황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선녀울(仙女洞) · 선유동 : 3리에 있는 마을. 선녀들이 풍경이 아름다운 이 마을 뒷산 봉우리에 내려와 놀고 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안골 · 내동 : 2리에 있는 마을. 선유봉 서맥 아담한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옛날 죽산 竹山안씨들이 세거하였던 곳이라 한다. 지금은 군부대와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양짓말 : 선을 동쪽 3리에 있는 마을. 양지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어숫물 : 4리에 있는 마을. 어숫물이 있는 마을이다.

원터 : 4리에 있던 마을. 조선조 때 세운 원(院)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장승백이 : 4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장승이 서있었다고 한다.

주막거리 : 4리에 있던 마을. 지금은 도시화되었다.

창골 · 창동(倉洞) · 창내동 : 2리에 있는 마을. 문산포에서 하역한 상품과 곡식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칠정말 · 칠정동(七井洞) : 5리에 있는 마을.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양질의 물이 많이 나오고 일곱 개의 좋은 우물이 있었다하여 유래됐다.

[참고] 이천리 : 지금의 선유 4 리 지역을 아랫배내라고 하였는데, 풍수지리에 따르면 배 형태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 고려시기로 알려진 아기능 2개를 최근에 어떤 미친 보살 할머니가 선유리의 칠정말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역사에 등재된 선유리의 여성들

파주 시지에 등재된 선유리의 여성은 두 명으로 파악된다. 각각 한국인과 이주 외국인인 두 여성은 모두 결혼을 통해 파주로 이주했다. 내국인 여성의 시선에 비친 당시 기지촌 선유리에서 쓰인 특유의 일상어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을 확일할 수 있다.

한기영은 스무 살이 되던 해인 1958년에 외숙모의 중매로 신중환과 혼인하였다. 남편은 당시 막 제대한 상태였는데, 물자를 실어 나르는 미군 수송헬기를 보더니 장사를 하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수 있을 거라며 한기영에게 고향인 파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전쟁 후 파주 일대의 수용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나이선 패스’라는 것을 발급해 주었다. 신분을 증명하고 거주를 허용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이었다. 외지인인 한기영은 ‘나이선 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 미 합동근무소를 피해 남편과 함께 한밤중에 선유리로 들어왔다. 한기영이 선유리에 온 1950년대 말, 파주 일대에는 이미 ‘토인’들과 미군들이 버글버글했을 정도였다. 한기영은 20대 초반의 새댁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파주의 미군들 곁에는 ‘칠성 엄마’와 같이 미군을 상대해 돈을 벌려는 중년 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⁹

김치를 좋아하며 돼지 갈비찜을 잘 만든다는 베트남 이주여성 느구엔 튀 호완(25세). 문산읍 선유리에 거주하는 그녀의 한국 이름은 이정희다.¹⁰

선유리 관련 예술작품

거미의 땅, 2012. / 영화, 150분

감독 : 김동령, 박경태

주연 : 박인순, 안성자, 박묘연

어머니의 품, 파주, 2016. / 사진집, 2권

발행 : 파주시 파주문화원

기획 : 현장사진연구소

사진 : 이용남, 조영애, 이재갑, 이정용, 김보람

글 : 홍은택

9 파주시지 2권, pp.463-465

10 파주시지 2권, pp.458-460

구술 생애사 & 사물과 공간의 역사

기지촌의 수십 년 역사의 산 증거이며
 현재도 기지촌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는 한 장소(S분식)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기지촌 관련 유/무형적 기억을 기록,
 인터뷰 및 채록문 작성.(비공개 자료)
 S분식 실내외 건축 실측 및 디지털 3D 모델링,
 이야기 관련 사물 및 이미지 수집.

선유리의 한 분식점에는 여성들이 모인다. 이 분식점은 <선유리는 매일매일>이 잠시 머문 곳이기도 했다. 작업을 위해 한 달에 서너 번, 아니면 사나흘 길게, 평일이건 주말이건 파주 선유리를 찾았던 미술작가와 영화감독들은 이 분식점을 중심으로 선유리에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살아온 여성들의 인생사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작업자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놓고 한 두 시간 정한 뒤 방에 앉아서 또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계획도 없이 분식점 바(bar)에 앉아서 요리하는 그녀와 찾아오는 그녀들의 회고와 수다에 끼어들기도 했다.

이렇게 귀 기울여 스며들며 들었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이 책자에는 세 가지로 나눠 싣는다. 에세이 형식의 ‘선유리의 그녀 - 단수 또는 복수로서’에는 여러 그녀들의 생애사를 한 명의 주인공으로 결합해 단상으로 이었다. 실루엣 이미지와 문장으로 구성된 ‘S 단어집’에서는 구술생애사 속에서 발견한 특유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짚었다. 극본 형식의 ‘선유리 뉴욕에서 1막’은 실제 선유리에서 ‘뉴욕’이라 불렸던 골목을 걸으며 이 거리에 중첩된 그녀들의 기억을 복기해 본 내용을 간추렸다.

이 여성들이 모든 선유리 여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녀들은 다만 선유리에서의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말할 뿐이다.

선유리 S분식의 공간을 여러 사물들이 채우고 있다. 주인장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의미심장하게 단독 컷을 받았던 낡은 주전자하며, 기름때가 찌들어 티는 잘 나지 않지만 지금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솜씨 좋게 만들어진 튀김용 뜸채, 여성회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손으로 적어 내려간 연락망 메모들, 그 주소록에 남은 선유리 여성들을 명절이면 S분식으로 호출하는 빨간색 다이얼식 유선 전화기, 돛보기, 안마봉, 연탄 난로... 이 사물들은 대부분 지금도 S분식에서 쓰는 ‘현용자료’ 이지만, 수량이 많거나 소비재라서, 또는 수명을 다해서 버릴 것이라서, 원래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라서, 아니면 어쩌다 S분식에 놓여진 것이라서, S분식이 운영되는 이 때에도 실물을 수집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물들이 있다.

제목	생산자	수집자	생산연도	유형 형식 (세로x가로x깊이/높이/순)	설명
S분식 메모	박OO (선유리 S분식 주인) 장지남	김진주	2017	종이 위에 볼펜 132x95mm, 4장	S분식의 가격표 조정, 그리고 장·불·것 등을 적은 메모이다. 주인의 말을 S분식의 운영을 약 5년 이상 듣고 있으며, 2017년 <선유리는 매일매일>을 공동 진행한 장지남 영화감독이 옮겨 적었다.
선유리 여성회장 직인	박OO (선유리 여성 회장)	김진주	1980~90 년대 추정	종이 위에 날인 20x20mm(날인만)	선유리 여성회장을 수십년간 역임한 S분식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종이 위에 찍은 것이다. 도장에 각인된 문구를 참고하면 선유리 여성회의 정식 명칭은 '선유4리 직업여성 자치회'인 것으로 보인다.
군용 보급 성냥	미상	김진주	1980 년대 추정	종이, 성냥 50x38x5mm	미군용으로 보급된 성냥으로 추정. 겉면에 약친후에도 불이 잘 붙도록 만들어졌다는 문구가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다.
냅킨	미상	김진주	2017 추정	펠프 위에 잉크 118x110mm	오래된 단골 업체로부터 주문해서 쓰는 S분식의 냇킨(휴지)이다. 겉면에 초록색으로 '감사합니다'와 장미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
파스, 조제약	박OO	김진주	2017	플라스틱 및 종이, 약품 200x155mm, 180x146mm, 75x55mm	S분식의 단골이자 선유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상비약.
파주 바른신문	언론협 동조합 파주 바른 신문	김진주	2017	신문 위에 컬러 인쇄 546x391mm	S분식에 비치되어 있던 파주 지역 신문 '파주바른신문'의 2017년 9월 28일~10월 14일자 발행본. 3면 종합 색면에 지면 2/3에 해당하는 S분식 취재 기사가 실렸다. "어머니 찾기를 나лага 못 하던 시민단체라도 나서주길...혼혈인 김OO(51)씨 가족이 지난 6일 1960년대 기지촌 생활을 했던 문산 선유리직업여성자치회 박OO 회장을 찾아가 어머니의 소식을 물었다. (후략)" 기사 본문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취재는 조영애 사진 기자, 이용남 선임기자로 기재.
"엄마를 찾 습니다." 전단지	이OO	김진주	2017	A4 용지 위에 흑백 인 쇄 297x210mm	S분식에 비치되어 있던 전단지. "엄마를 찾습니다. I want to find My Mom / 6살 입양당시 모습 / 현재 모습 / 저의 이름은 이OO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OO입니다. (후략)" 문구가 인물 사진과 방송국 프로그램 마크로 추정되는 이미지와 함께 출력되어 있다.
S분식 앞치마	박OO (선유리 S분식 주인)	김진주	2000~10 년대 추정	천, 천 위에 컴퓨터 자수 1090x1000mm (검은색, 자주색 크기 동일) 2점, 930x800mm(주황색) 1점, 총 3점	선유리 S분식의 주인이 평소에 가게에서 음식을 할 때 쓰던 앞치마 3점. 1) 검은색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난 구멍이 2개 있고 얼룩이 심한 편이며 주머니는 앞쪽 양손쪽에, 어깨끈은 X자로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부착되어 있다. 2) 주황색 앞치마는 검은색 앞치마와 동일한 모양으로 색만 다르며 기름 구멍이 크고 작게 9개 나 있다. 3) 주황색 앞치마에는 가슴 위치에 "문산을 생활 개선회"라는 문구가 파란색 실, 컴퓨터 자수로 놓여있고 가운데 주머니가 나 있으며 어깨끈은 H자, 허리끈이 얇게 추가로 부착되어 있다.
귀걸이	정OO	김진주	1960~80 년대 추정	큐빅, 도금, 쇠, 고무 등 각 20~25x20~25mm, 총 4쌍 8개	S분식의 단골이자 선유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즐겨 착용했던 귀걸이 4점

원정상임. 박과장 0311924-0020
 월이자 2.32%이내. 이자율 및 연체이자를 연27.9%이내. 무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문: “부채는 보름마다 10%씩 증가한다.”
 “부채는 100%의 위험을 안고 있다.”

想應대부 등록번호 : 2017-京畿高緯-1805
 京畿高緯-1805

京畿高緯-1805
 想應대부 등록번호 : 2017-京畿高緯-1805
 원정상임. 박과장 0311924-0020
 월이자 2.32%이내. 이자율 및 연체이자를 연27.9%이내. 무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문: “부채는 보름마다 10%씩 증가한다.”
 “부채는 100%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전치쿠스 5000
 구비비 6000
 기비비 5500
 치과비 6000
 치과비 4000
 치과비 6000
 치과비 7000
 치과비 2000
 치과비 1000
 치과비 1000
 New Menu

기비비 3kg x 7
 구비비 20kg
 기비비 (기비비)
 기비비 3kg x 7
 구비비 1-2kg
 기비비 1-2kg
 기비비 1-2kg

S분식의 가격표와 장 볼 것을 적은 메모



S분식에서 발견한 군 성냥



S분식의 냅킨과 비치되어 있던 전단지



S분식을 취제한 파주 지역 신문



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노령의 선유리 여성들이 사용하는 약품
아래) 선유리 S분식 수집물품 보관 상태



선유리 뉴욕 골목의 화려했던 삶을 나타내는 한 선유리 여성의 귀걸이



S분식 주인 여성이 수년간 사용한 앞치마와 기름에 탄 구멍 자국



S분식의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선유4리 직업여성 자치회의 도장

선유4리 직업여성 자치회의

미군이 떠나고 산업단지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전 선유리 사람들의 소리는 찾아 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마을의 일을 꾸려가던 기억은 선유리 곳곳에 남아 있다. 불투명한 하늘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옛 선유리 중심의 한 건물 1층 유리문 위로 부착된 여덟 글자, 선유4리 리사무소, 그리고 시선을 따라간 2층에 그리 크지 않은 양각 간판으로 붙은 네 글자, 마을회관, 색은 흠어지고 선은 부서져도 그 자리에 있다. 이 곳 마을회관에서는 결혼식도 열렸고 미군들과의 친선을 위한 잔치도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마을의 대소사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은 음식과 그 외에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선유리 여성회장이 도맡아 해냈다. 그때 여성회장의 직인이 오래된 검은색 힘색 속에 보관되어 있다. 과거 도장이 쓰였던 바쁜 시절과 수많은 일들을 짐작케 하듯, 이제와 종이 위에 찍으니 그 모양이 바스라진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니, 이 열두 글자인 것 같다. 선유4리 직업여성 자치회의.



실측모델링

밥을 먹는 곳. 식당은 그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만큼이나 혼하디혼한 것들이다. 집에서 가족과 둘러 앉아 하는 식사가 귀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홀로 끼니를 해결하는 식당은 더 일상적이 되어 버렸다. 개개인이 고독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이방인도 낯설게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음식의 섭취라는, 주변을 경계하게 되는 동물적인 행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각을 내밀하게 자극하는 인간적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식당. 그렇게 위안을 위와 마음속에 모두 받기도 하는 장소. 그럴만하기에 어떤 한 시인도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 '길모퉁이의 중국식당'에서 친근한 벗들과 시간을 보냈던 홍대 근처 중국집을 기억하는 글을 쓰기도 했을 것이다. 선유리에서도 그럴만한 식당을 하나 찾을 수 있다.

단, 여기는 두 번 정도 기대를 접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이 식당의 이름은 '분식' 집이지만, 보통 분식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메뉴판에 올라있지 않다. 한때 미군들이 고향의 맛을 느꼈던 루이지애나식 햄버거와 핫도그가 이곳 주 메뉴이다. 종종 김밥을 찾는 손님이 문 앞에서 돌아가기도 한다. 첫 번째 배신이다. 두 번째 배신은 이 식당이 길모퉁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길이 사라지는 숨은 자리가 아닌 곧게 드러난 대로변 중간에 있다.

그렇지만, 배신들을 상쇄할 반전이 있다. S분식의 길에는 우울한 소녀들을 문학으로 이끌었던 모퉁이와 비슷한 효과가 충분히 잠재되어 있을 듯하다. 2차선 도로인데 시골 마을보다는 어반 라이프 스타일이 묻어난다. 마치 고전적인 기승전결을 기다리고 들어섰는데, 한 토막만 듣고 쿨하게 끝나버린 이야기 같은 직선이다.

11 허수경, 『길모퉁이의 중국식당』,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2018. p.264.



다시 그렇지만, 한적한 그 길 가운데 오후의 시작을 조금 넘긴 시간, 등이 굽고 눈이 어두운 한 할머니가 더듬듯 천천히 걸어와 알루미늄 셔터를 올리고 S분식의 영업을 시작한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지난 세월 동안 더 반질반질해진 목재 바(bar) 위로 쓰고 왔던 알이 큰 분홍색 셰이드 선그라스를 벗어놓는다. 모르는 이가 보면 이질적일지나, 전혀 어색함이 없는 습관의 풍경이다.

분홍색 꽃무늬 커튼을 걷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동네 친구 단골이 들어온다. 익숙하게 냉장고에서 1리터 생수병에 담긴 커피를 꺼내 한 잔을 따라 바에 앉는다. 커피에 섞인 시나몬 향이 은근하다. 그녀들은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연초도 하나씩 사이 좋게 머금는다. 친구 손님은 길고양이 밥 줄 때가 되자 자리를 일어선다.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커피 잔 아래 끼워놓고.

기지촌이라 불렀던 선유리, 이곳을 떠나지 않은 여성들의 노년 생활을 돕는 활동가가 또 다시 S분식을 찾았다. 여기 오래된 집들은 여전히 한겨울 연탄 때는 집이 많다. 이 중년 여성은 그녀들에게 연탄과 김치를 보내려 왔다. 그녀는 S분식의 주인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이드는 그녀는 마침 친구들이 그립다. 폴더폰을 눈 가까이 대고 단축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건다. 더러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손님에게 불러달라 해서 유선 전화기 다이얼을 누른다. 신호음이 들리고, 어느새 바 하나와 테이블 세 개 주변으로 친구들이 모였다. 그렇게 그녀는 이제 늘어날 일 없는 전화번호부의 명단을 확인한다.

요새는 드물어진 그냥 손님들이 한 둘 거쳐가고 난 뒤 날이 어두워졌다. 마지막 순번 동네 친구가 빌딩 청소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들렀다. 냉장고에 얼려둔 소세지 하나를 꺼내 끓여 빵에 소스를 발라 내놓는다. 여분으로 사놓은 소세지 한 봉지는 고기 대신 밥반찬하라고 친구 손에 들려 보낸다. 그녀가 일어선 자리에는 텃밭에서 캔 알토란 감자가 두 줍 남았다. 그렇게 어둠이

깊어 새벽이 중반을 넘어가면 가게 청소를 구석구석 말끔히 마친 그녀가 커튼을 치고, 셔터를 내린다. 그리고 기분이 쓸쓸하니 이상해지는 이 안개 낀 밤을 아름답게 느끼면서 집으로 향한다.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S분식의 2차선 도로가 확장된다는 말이 많다. 2018년 파주시가 발표한 주요업무계획에 선유리가 속한 문산읍의 발전방향 첫머리가 파주북부지역 교통 허브화이다.¹² 분단으로 기능을 잃은 국가지원지방도로 78호선의 파주시 구간을 변경하면서 선유리와 법원읍을 잇는 도로를 넓히는 계획은 이미 2년 전쯤 발표됐다.¹³ 선유리 초입에서 살짝 빗겨나가는 경로이지만, 언제 된단 말이 돌은 것이 수년이긴 하지만,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들어선 후 손님은 없어도 차는 막히는 이 2차선 도로가 그대로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여기서 몇 년 뒤, 며칠 전 제주의 울창한 삼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를 보도한 기사 제목처럼 갑작스럽고 황망하게 "아름다운 길이었는데..."¹⁴ 하고 말아버릴지도 모른다.

그 미래를 대비하려는 생각에서도, 이 장소의 기억을 굳혀내는 대응물을 만드는 <선유리는 매일매일>의 활동의 하나로써도 좋겠다 싶어서 S분식의 실측과 시각화 작업을 예비 건축가들에게 부탁했다. 두 대학생은 가게 구석구석의 사물과 구조를 살폈다. S분식의 공간적 관계와 물리적 형태가 수치로 변환됐다. 3D 모델링은 이 정보값을 실제 공간이나 재원의 점유 없이도 옮겨서 구현할 수 있는 팬텀은 도구였다. 3장의 실측 메도, 1개의 3D 모델링 파일이 그려졌다. 외장하드 속에 360도로 들여다 볼 수 있는 S분식의 실내, 실외 공간이 단순한 선과 면이지만 무한히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장됐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라짐을 준비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슬픈 작업이기도 하다. 3D 모델링으로 다시 만들어진 S분식. 그곳의 기억은 온전히 남게 된 것일까? 한 장소에서 느끼는 공기가 과연 이미지 안에 담길 수 있을까? 기록은 우리의 기억을 보증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친구 손님이 행길이라 부르던 큰 길. 그 단어가 잘 쓰이지 않듯이, 이 길이 사라지고, 뒤이어 가게가 사라지고, 가게와 가게 사이의 골목이 사라지고, 드나들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그 근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듯이 S분식의 3D 모델링을 돌려보다 생각에 잠긴다.

12 2018 파주시 주요업무계획.

[https://www.paju.go.kr/flexer/docView_flexer.jsp?FileDir=/upload/board/2018/4/22/&SystemFileName=dea43d29-f2bb-46b4-9567-b39a9e1d2d08.pdf&ftype=pdf&FileName=2018+파주시+주요업무계획\(공개용\).pdf](https://www.paju.go.kr/flexer/docView_flexer.jsp?FileDir=/upload/board/2018/4/22/&SystemFileName=dea43d29-f2bb-46b4-9567-b39a9e1d2d08.pdf&ftype=pdf&FileName=2018+파주시+주요업무계획(공개용).pdf) (접속일: 2018. 8. 10.)

13 국토도 78호선 노선 변경...파주 북·동부 발전 기대, 연합뉴스, 2016. 7.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07400060.HTML> (접속일: 2018. 8. 10.)

문산~법원 도로확포장 기본조사설계 사업내역서, 2018. 11.

[https://www.paju.go.kr/flexer/docView_flexer.jsp?FileDir=/upload/board/2018/4/23/&SystemFileName=ba915674-f36b-41ed-91ef-6358ced5d397.pdf&ftype=pdf&FileName=2018-11+\(건설과\)문산~법원+도로확포장+기본조사설계.pdf](https://www.paju.go.kr/flexer/docView_flexer.jsp?FileDir=/upload/board/2018/4/23/&SystemFileName=ba915674-f36b-41ed-91ef-6358ced5d397.pdf&ftype=pdf&FileName=2018-11+(건설과)문산~법원+도로확포장+기본조사설계.pdf) (접속일: 2018.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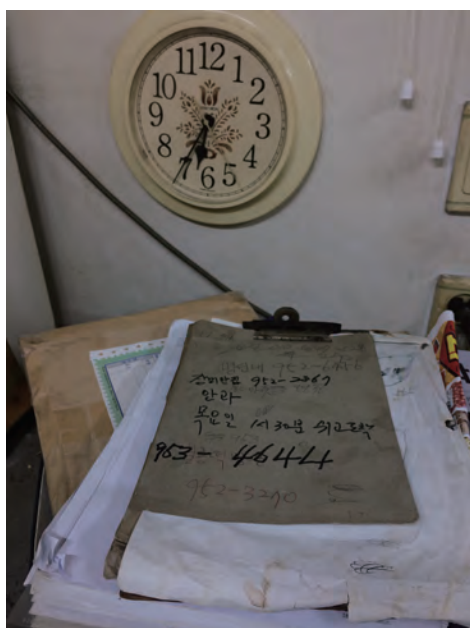
14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연합뉴스, 2018. 8. 9. <http://news.v.daum.net/v/20180809163723044?m> (접속일: 2018. 8. 14)







구술 생애사 & 사물과 공간의 역사







구술 생애사 & 사물과 공간의 역사











입양으로 보낸 자녀들
찾고 계십니까?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여명 이상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매일 더 많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키트 분석 및 관리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전분석과 비밀유지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정경아 (해외입양이 출신 분)
뿌리익심(KoRoot)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비광로 125-10
전화 번호: 02-3210-2451-2
QR 코드

휴대폰: 010-2614-0294
이메일: jltrenk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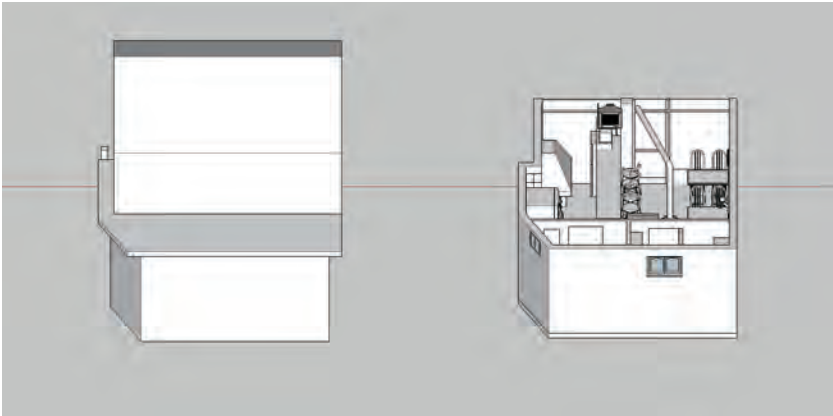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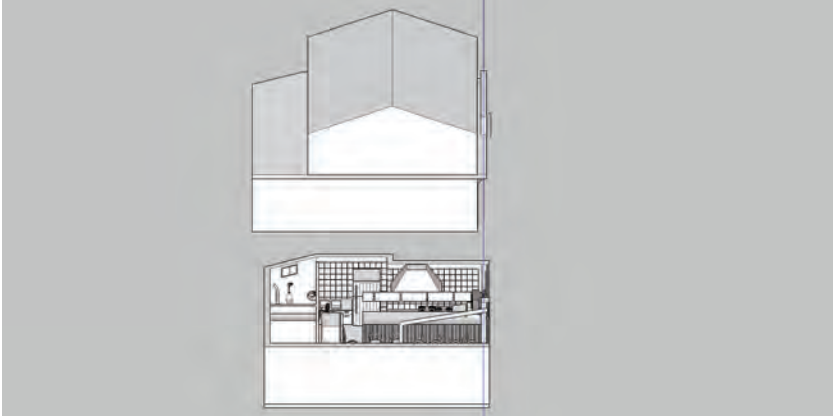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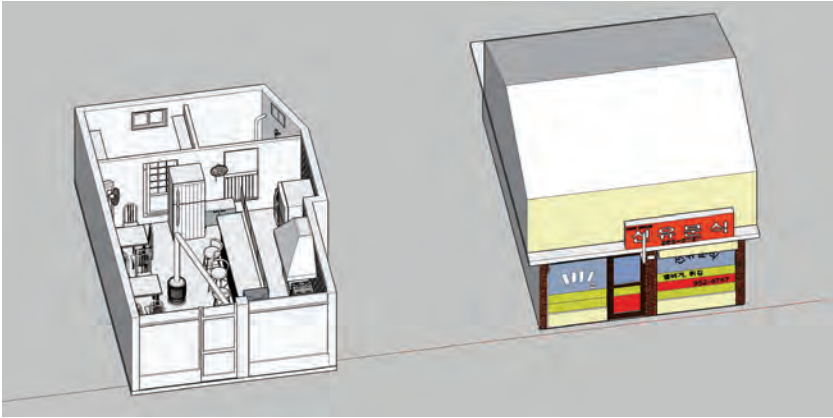
0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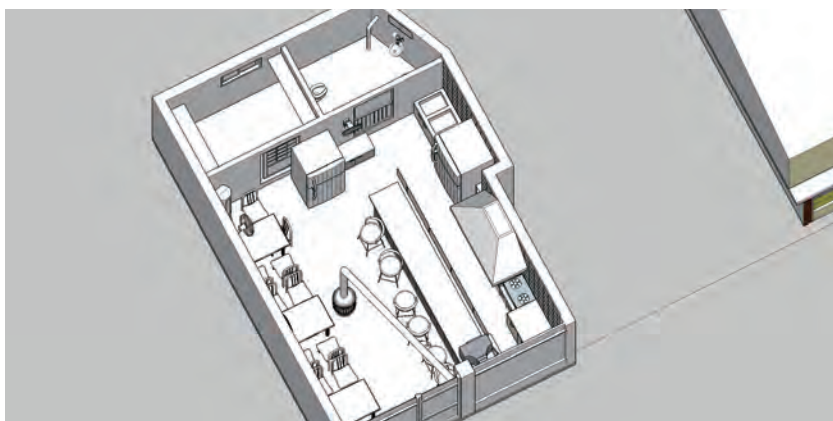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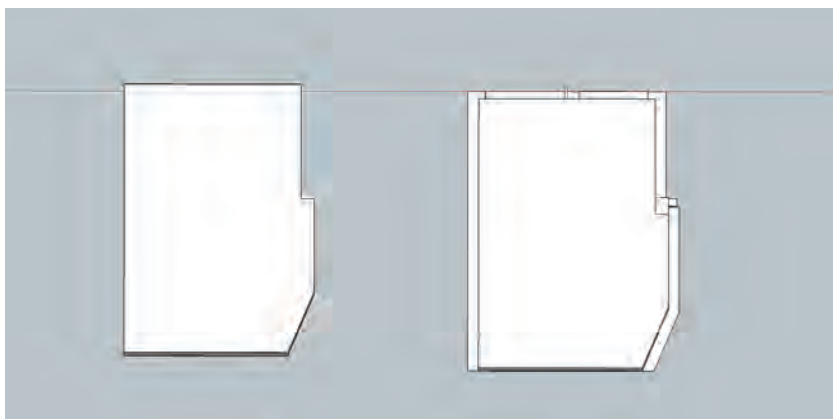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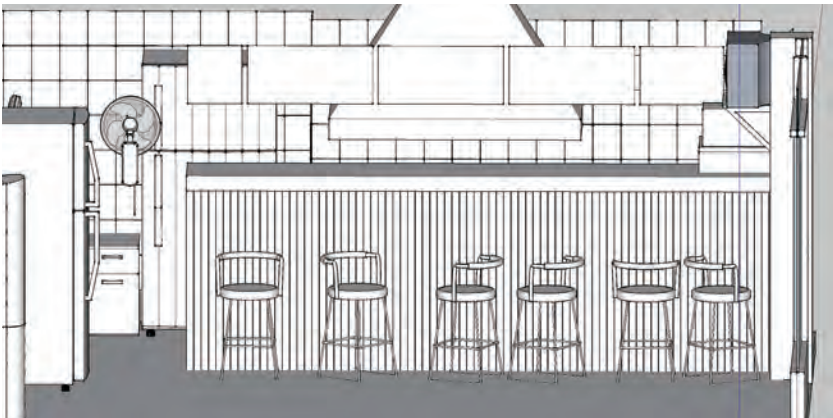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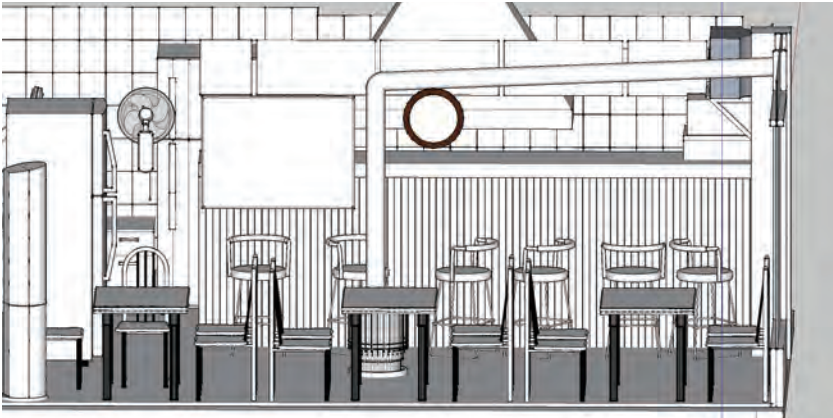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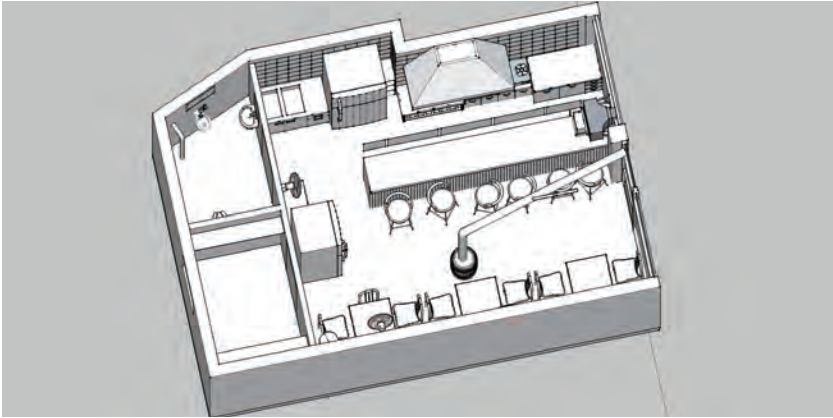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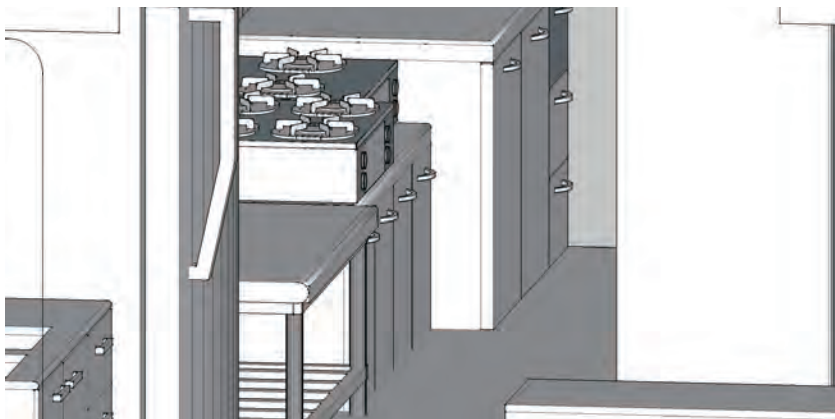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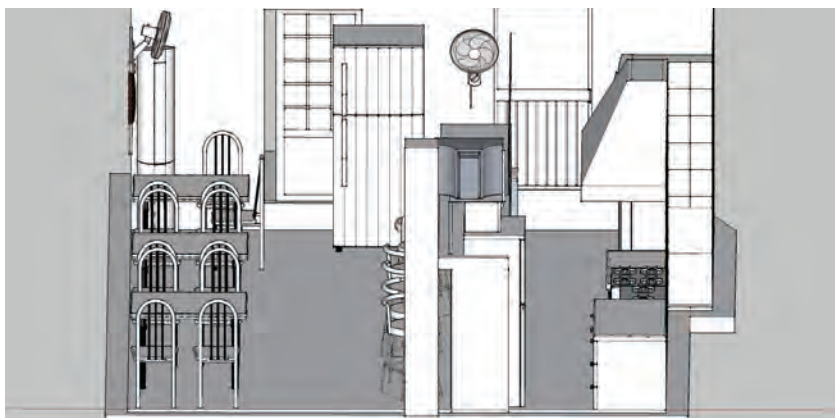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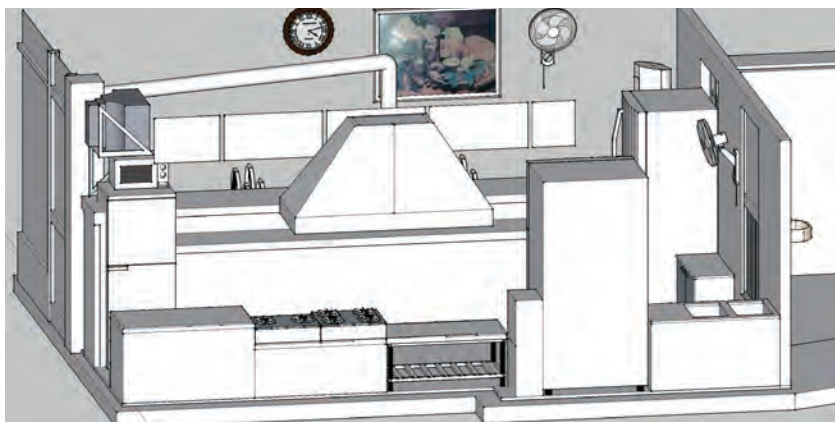
구슬생애사 & 사물과 공간의 역사











세계와 그녀의 역사 연표

숫자들	세상의 역사	그녀들의 역사
1939	세계 2차 대전 발발	일본 히로시마 근처 출생 이복 언니와 항해사 아버지 타이피스트 어머니 어머니의 죽음
1945	히로시마 원폭 세계 2차 대전 종전 해방	다시 출생, 부산 어딘가
1948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산항으로 귀환, 대구로 이주 또 다시 출생, 광주 어딘가
1950	한국전쟁 발발 고지전 돌입	18, 19살 서울로 이주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연락 단절
1953	휴전 협정 미군 주둔	용산으로 이주 다시 노량진으로 이주 다시 영등포로 이주
1960	4.19 혁명	영등포 근방 미군 세탁일 시작 동두천 사진관 취업
1961	5.16 쿠데타	출산 세 번째 연애
1972	7.4 남북 공동 성명	선유리 여성회장 역임
1975	제2땅굴 발견	당동2리(너더리) 이사
1976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자녀 유치원 스쿨버스 통학 긴 머리를 자르다
1979	12.12 쿠데타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주민등록 말소
1987	6월 민주항쟁	선유리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1988	서울올림픽	바베큐 파티와 야유회 선유리 뉴욕 골목에 관가게 개업 친구의 죽음

선유리의 그녀 - 단수 또는 복수로서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열아홉이나 스물이 될 무렵 선유리에 찾아 들었거나 다른 기지촌으로 유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전통이나 역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다. 이미 선유리에서 거주한지 수십 년이 되어도 몇 백 년 되는 소위 ‘전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선유리 골목의 주요 지명인 독서울이 독서라는 이름의 개울 혹은 연못이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산이나 가게 자리 등 마을의 대부분 땅을 안동 김씨 가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복개되었지만 마을 곳곳 집 앞에도 도랑과 실개천이 흘러서 홍수 피해가 많았던 것 정도를 알거나 기억하고 있다.

그녀들이 선유리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도시의 다른 기지촌을 거쳐 온 경우도 꽤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곳들이다. 서울에서도 영등포, 오산, 대전, 대전에서도 왜관, 동두천, 동두천에서도 툇거리.

그녀의 기지촌 첫 직장은 서울에 있던 미군 기지 근처 빨래 공장이었다. 그때는 탈수기나 세탁기가 없어, 개울가에 앉아 맨손으로 빨래 비누를 옷감에 문지르고, 도라무(드럼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 자전거 바퀴처럼 돌아가게 만든 사제 탈수통을 썼다. 비누도 잿물에 고기기름과 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라 지금에 비하면 매우 거칠었다. 그래도 때는 잘 지는 편이었다. 군복은 옷감도 질겨 술로 벽벽 문질러야 했다. 세탁 일에는 주름을 잡는 기술자가 따로 있었다. 군복에 한번 각을 잡으면 쉽게 구겨지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녀가 쓰는 단어들을 되짚어야 한다. 그녀의 말은 때로는 일본어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섞이고 바뀌며 발화되었다.

그녀의 기지촌 두 번째 직장은 사진관이었다. 미군들은 사진을 참 즐겨 찍었다. 사진관 주인은 한국인 아저씨였는데, 그녀에게 카운터 일을 주로 맡겼다. 가끔 현상 일도 돕곤 했는데, 역시 장갑 같은 건 끼어 본 적이 없다. 사진관 주인은 미군들이 클럽에 놀러 오는 시간이면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고, 다른 출장 카메라맨의 필름을 받아다가 현상과 인화 작업을 맡아주기도 했다. 그녀도 사진관을 그만두고 클럽 일을 할 때 찍어 본 기억이 있다. 그들은 장당 1달러를 받았다. 사진관에서 만난 미군과 잠깐 같이 지내기도 했다.

클럽에서 일 할 나이가 지나 LP판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의 가게 옆으로 판가게나 작은 클럽을 열었다. 그래서 선유리에서 뉴욕이라 부르는 골목이 생겨났다. 그녀들이 하는 작은 클럽은 포주들이 하는 등록된 큰 클럽하고는 달랐다. 아가씨들이 있는 방도 없고 단순하게 바가 달린 홀이 있고 노래를 틀어 줬다.

“가게를 등록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쉬웠어. 영업하는 페스 등록하는 중 있잖아요. 그런 거 맨들라면(만들려면) 읍사무소 가서 맨들어. 특수관광협회 가입 그거를 안 했더니까. 개인으로 사가지고 한 거지. 관광 그거 하는 거 그것도 평수가 있어. 언제 고만들 줄 알고 그걸 해.”

흑인들은 음악을 참 좋아했다. 흑인과 백인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자들은 섞이는 편이 없었다. 흑인 여자. 백인 여자. 따로따로. 흑인 여자 화장법도 따로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머리는 뽀글뽀글.

그녀는 그때 음악이 참 듣기 싫었다. 뭐가 즐거운지 몰랐다. 반면, 그녀의 친구는 노래자랑에 나가면 늘 1등을 했다.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한 순간에 변하는지 그 곱던 목소리가 지금은 없다. 그러나 그녀가 대전 신탄진 클럽에 있을 때 즐겨 불렀던 이화자의 화류춘몽은 그녀의 성대 속에 잠들어 있다가 늦은 밤공기를 타고 슬며시 새어 나오기도 한다.

선유리가 미군들로 넘쳐나고 동네도 잘 살 때 다 같이 소풍을 가곤 했다. 그때 우리는 나무 위에 스피커를 달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요리 잘했던 큰 손 그녀의 친구는 닭이며 돼지고기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눴다. 지금은 비워진 옛 마을 회관 2층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곤 했는데, 그런 날은 마을 잔치를 했다. 이날 역시 그녀의 음식이 빠지지 않았다. 쉬는 날 그녀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저 뒷산에 올라서 놀기도 했다. 그 산은 원래 안동 김씨의 선산이었다. 사진 속 그녀와 친구들은 무덤과 비석을 놀이기구처럼 대한다.

친구들은 강했다. 포주도 무서워할 정도였다. 그녀들은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며 거리를 휩쓸었다. 다 같이 술도 마시고 약도 해 봤다. 그녀 중에 몇 명은 집에서 부모가 데리러 왔었지만, 도망을 쳐 선유리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같은 선유리, 같은 시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녀들도 있었다. 날쎈 그녀들은 또 다른 그녀를 도왔다. 포주의 눈을 피해 그녀를 도망치게 했다. 노력이 무상하게 어떤 그녀는 다시 잡혀 오기도 했다. 무리에 섞이지 않는 그녀도 있었다. 혼자 산길을 지나 귀가하는 그녀는 칼 하나를 품고 다녔다. 가게에서 고기기를 한 덩어리를 사서 그 칼로 한입 씹 베어 먹으며 밤 속을 걸었다.

“그때는 이 산길, 산길이야. 길이 안 좋았어요. 산을 넘어가거든 문산 가서 반찬거리 사면은 생선 뭐 고기 이런 거지. 채소 같은 거는 시골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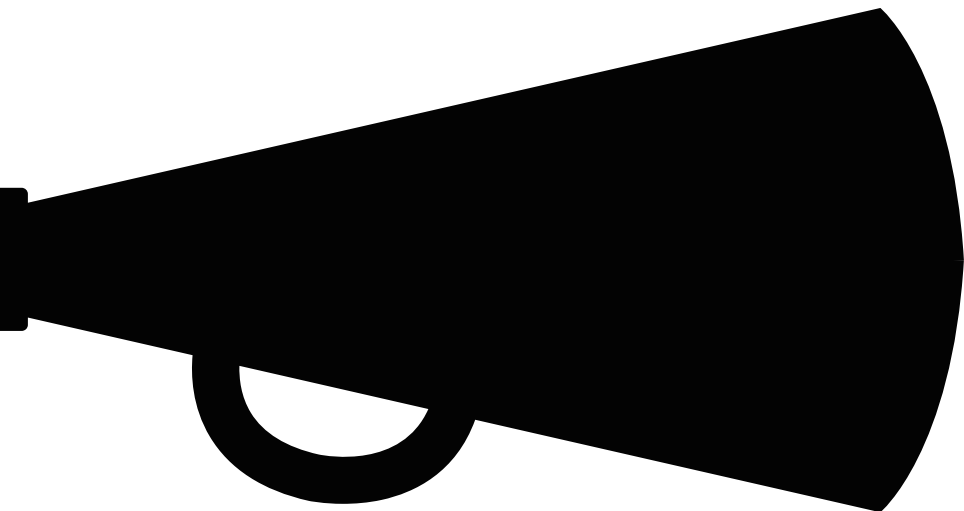
시골 사람한테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시장 봐 가지고 오면은 골로 또 넘어오면 돼. 그래가지고 한 시간 잡아야지.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지. 그래서 잘 안 나갔지. 누가 나가면 부탁하고. 아니면 아프면 기다리는 버스가 그때는 포장을 안 하고 길이 좁으니까 터거덕. 아, 얼마나 나쁜데.”

그녀들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은 정확하지 않다. 그녀들은 해방 전 일본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어디에서 언제 이 세상에 나왔는지, 기억도, 기록도 모두 없다. 너무 어린 시절이라 어림쫓하게 동네 이름이나 누가 함께 살았는지 정도를 기억할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본 검은 하늘의 큰 구름은 잊어지지 않는다. 그녀들이 본 것이 아마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배를 타고 아버지, 이복 언니와 함께 귀향했다. 배를 타던 아버지는 재혼이었고 어머니는 초혼이었는데, 검은 구름이 생기기 몇 달 전 어머니는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이복 가족들의 눈치 속에 놓인 삶이었다. 또 다른 그녀의 살아 있는 어머니는 만신이기도 했다. 만신인데 돈은 별로 벌지 못해 가족은 늘 굶주렸다. 그녀는 항구에 도착한 배 밑바닥, 배의 뱃가죽에 붙은 조개를 따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거칠지만 멋있는 사람으로 회고한다.

“참 재미있게 사는 건, 근데 후회는 없어. 할 짓 다 해봤으니까. 진짜 후회는 없어. 진짜야.”



S 단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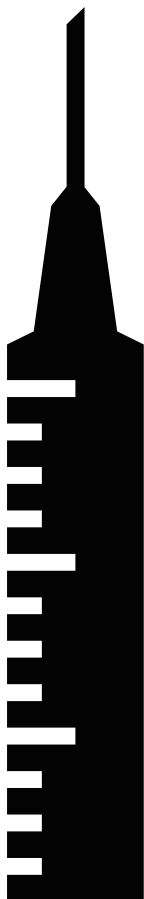


사이렌

전쟁이 나면 마을 이장만 구분할 수 있는 소리로 알린다. 전쟁 시 이동하는 지역이 기지촌마다 정해져있는데 파주는 수원이다. 수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마을 이장이나 여성회장 정도만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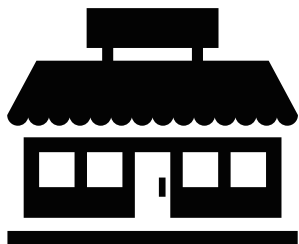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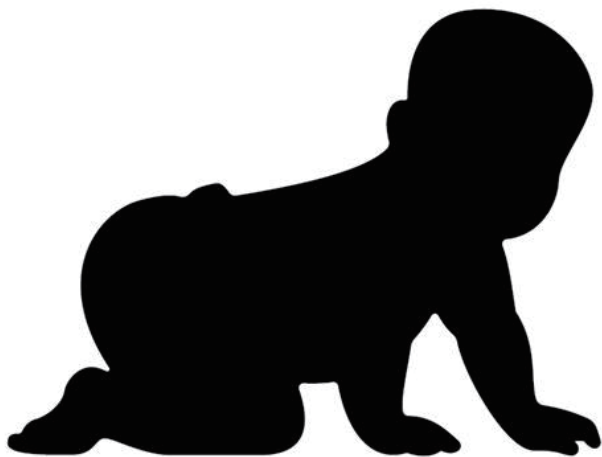
주사

“당뇨 주사. 이거 큰 거 두 개 맞고 정신 나갔는데. 내가 살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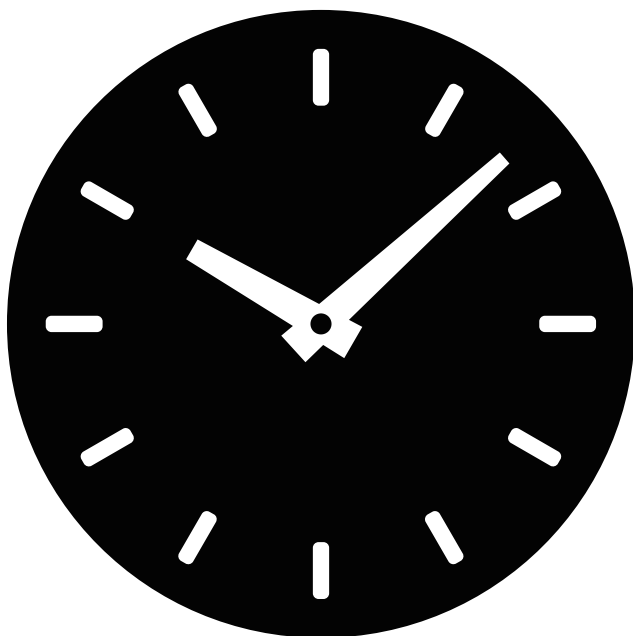
자식/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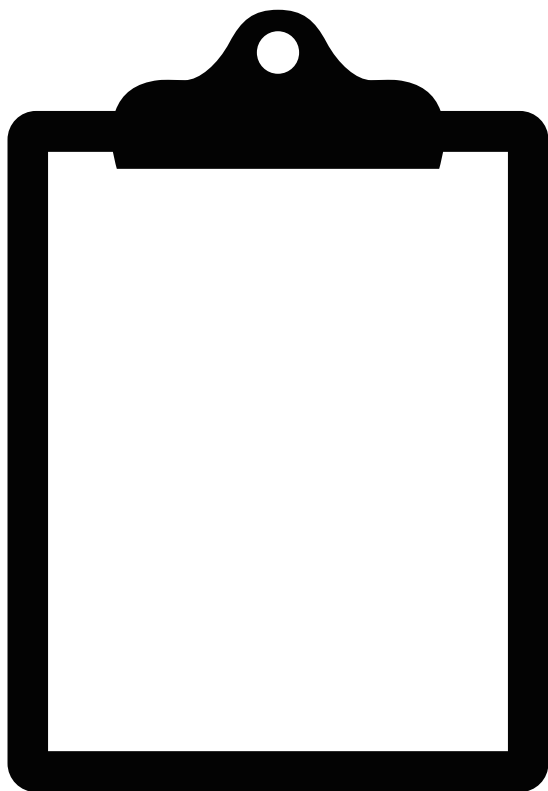
“엄마 마음 잘 알아줘. 자식은 늙은 똥강아지야. 정이 고파 그런가 가고 나면 기다린다. 언제 오나 싶어서. 만났다 헤어지는 게 왜 이리 싫은가 몰라. 평생을 헤어져 살아, 내가.”



새벽

“두 시 이전에 잠든 적이 없어. 평생. 일 마치고 둘이 걷는 거야. 그냥 걸어. 저 위에까지.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니 얼마나 낭만적이야. 혼자. 이상한 생각도 하고.”





메모장

낡고 손때 묻은 종이들. 연락망, 기지촌 여성자치회 회장일 때 작성한 전화번호부. “늘진 않아. 줄지. 하나 둘(죽으니까)... 아까 미국에 사는 옛 친구가 왔는데, 개 동생 번호 좀 찾아봐. 동생 찾아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잘 갔는지 걱정이 돼서....”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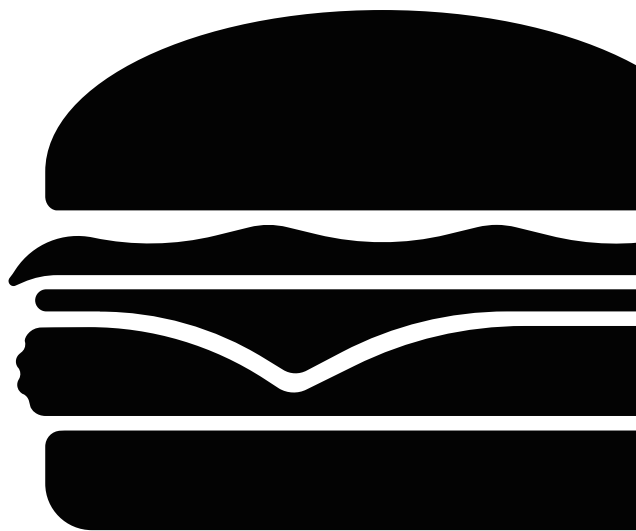
"내가 영어를 좀 하잖아. 할어택(heart attack), 심장마비, 한 참 바쁘잖아. 영어가 막 나와. 카브(커브) 카브! 오케바리가 무슨 뜻인지 아나? 오케는... 바리는 에브리바디. 모르고도 잘 써. 근데 맞아. 미군 애들이 술 쳐 먹고 안 가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저 칼 들고 '아 컷 요 넥(I cut your neck).' 내가 니 목 따버린다고. 그러면 옆에 애들이 챙겨서 데려가. 지금 영어를 다 잊어 먹었지만은 미군들 영어로 막 잘 산다고 그러고 한국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해요. 나한테 무척 당해요. 너 네들이 돈 벌러 나왔지 한국 도와주러 나 왔냐 이거야."



커피

“엠제비(MJB), 포저(Folgers), 또 맥스웰, 거기나 시내몬(시나몬, 계피)를 좀 섞어. 그러고 숙성을 시켜. 그러면 향이 끝내줘. 전에 미군 여자 장교, 하우스 콜이 뭘 한 순갈 넣더라, 시내몬. 커피 각 테일이지. 믹스해서 저거끼리 발효가 되면 맛있어. 텍사스 스타일!”





햄버거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야. 처음에는 미군 부대에서 먹는 거 보고 따라 했는데, 나중에 미국, 루지애나(Louisiane) 가서 흑인 할머니한테 제대로 배웠어. 미군들이 포장 풀어서 햄버거 먹어 보면 내가 만든 지 아닌지 안대. 침봉을 잡고 여기 눌리고 눌리고(눌러서) 딱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켜. 나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런 장사하고 살까 봐. 여기에서만 30년 됐어. 옛날에는 미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미군 부대와 양식

“과주에 있는 미군 부대 중에 안 가본 데가 많지. 선유리 부대 들어가보고, 강 건너 임진강 건너서 가보고. 가끔 탄 부대 들어가보고. 그때는 에스코트해야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 거지. 강 건너서 관문점 말고도 미군들이 많았어요. 여러 부대가 있었어. 그래 이제 차가 이제는 아가씨들 데리러 나와. 지프 말고 버스 비슷한 차가 있어. 그럼 저는 그 타고 주민등록 패스. 그거 누구누구 에스코트한다는 다 기록이 있거든. 들어 가면은 시간 되면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야.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있거든. 거기서 놀다가 춤추고 싶으면 춤 좀 추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술이나 먹고. 또 미군들 시켜서 이제는 뭐 뭐 사오라 하면은. 그 카운터에 가면은 파는 거는 한국 사람이거든. 그러면 포장을 해서 나와. 어쩔 땐 뺏길 때도 있어. 근무하는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 검사 할 때가 있어. 아이 금방 갔다 금방 나오지 뭐 한 두 시간 놀다가 나오는 거지. 재밌어 참 재밌어. 그거 외에는 없어. 가서 피자 같은 거. 클럽에 가면 미군이 시켜주면 피자 먹고, 스테키(스테이크) 그거 먹어보고, 햄버거 먹어보고, 그랬지 뭐. 양식은 다 먹어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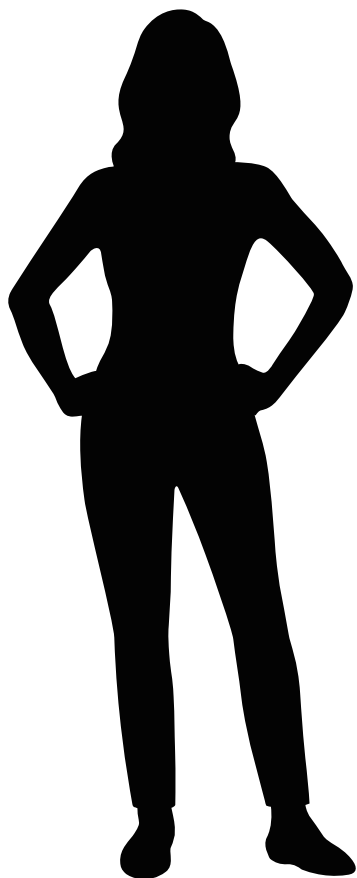
닭튀김

“지금은 그냥 다 흔해가지고 맘대로 먹잖아요. 그때는 별로야. 가끔 미군들이 이제는 집에 와 가지고는 닭 튀기(튀겨) 달라고는, 우리는 다 가정에서 양념해서 닭 튀기가지고 맛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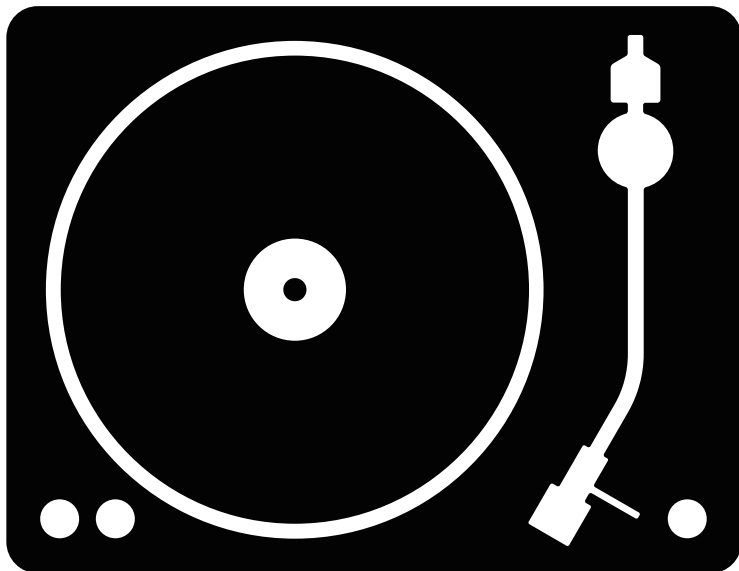
화장

“옛날에는 이렇게 흑인 여자 화장을 했다고. 입술을 하얗게.”



이주

“스물에 집 나왔지. 오산에도 있었고, 대전 신탄진, 왜관 동두천 톽거리. 그때는 사진관에 있었어. 그러다가 선유리로 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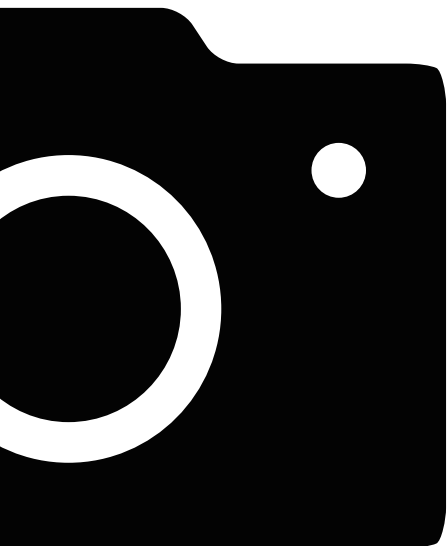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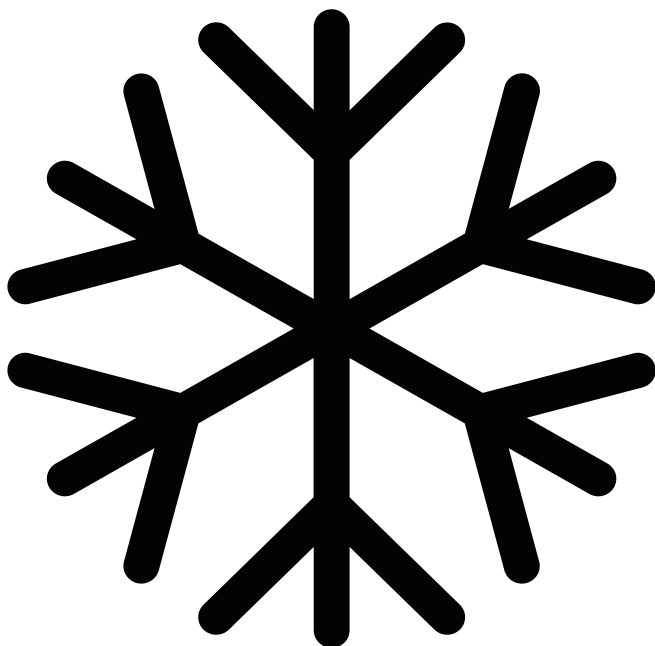
클럽

“이름이 꽃샘이었어, 꽃샘. 지금 옷 수선 집 자리. 그 다음에 클럽 이름은 불꽃. 왜 저 미군들이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비상 걸리면은 우리도 문 닫고. 미군이 나오게 되면 열고.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닫고. 저녁부터 열지. 보통 다섯시 여섯시 그때 열고. 그 사람들 비상 걸리면, 미군들이 안 나오면 조용하지. 클럽 여는 데도 있지 있는데, 뭐, 에이피(AP, 헌병)들만 왔다갔다하는 거지. 저 혹시 탈영병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검사하고.”

사진사

“클럽마다 사진사가 왔었어. 한 장에 1달러. 찍고 다음에 뽑아서 오는 거야.”





임진강의 겨울눈

“서울이랑 여랑 5도 차이로 보면 된다.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미군들 있을 땐 눈 잘 치워. 지네들 다녀야 하니까. (지금은) 추우니까 사람이 귀하다.”



총소리

“어유 무서웠지요. 생전에 그런 거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지. 침에 얼마나 하여튼 방에 앉아서 나가지도 못했어. 어두워지면 못나가. 다다다다 다다다다. 그런데다가 이북에서 마이크 소리가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안 나는 거여. 가끔 들리기는 하는데 그때는 옆에서 하는 거 같애. 방송을.”

거울

싱크대 옆에 장식적 프레임의 거울이 달려있다. “요래 보면 다 보여, 누가 들어오는지.”

앞치마의 구멍

노동의 산물. “튀김을 오지게 했다.”

교회/절

“선유리 교회 절 있었죠. 절은 개울 건너 스님들 있었어. 스님들이 공부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조그만 집에. 개울이잖아 다리 딱 건너서 바로 옆에 있었어.”

양장점

“그때는 다 맞춤이야. 기성품이 없었어요. 얼마 있다가 기성품이 나온 거지. 문산에 옷 잘 맞추는 집, 나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 단골로 해 놓고.”

선유리 뉴욕에서 1막

한 중년 여자와 카메라를 든 한 청년이 걸어가며 대화한다.

여자 : 두 개가 아니라 많았어. 미군들이 여기서 옷을 맞춰서 그냥 열 벌 백 벌 맞춰가. 싸니까.

남자 : 당구장이 양복점이었어요? 이름이 엘레간자?

여자 : 이 전세대(전봇대)가 내 애인이야. ... 내가 술만 취하면 이거 끌어안고 서 있었어 옛날에. 옛날에 이거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쩌잔하네. 찌까네. 엄청 컸는데. ... 엘레간자. 양복점. 아주 선유리에서는 이거(최고)였어. 여기가 농협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파는 데였어.

남자 : 건물도 그대로였고?

여자 : 건물은 이거보단 못했지. 단층. 새로 지었지. 악세사리. (걸어가며, 농협 옆 고기집) 이 집도 건물 바뀐 거야.

남자 : 옛날에 뭐였어요?

여자 : 구멍가게. 달라 바꾸는 데. 딸라집. 얼마 전에 바뀌었어.

남자 : 여기는?

여자 : 음. 옛날에 홀이었지.

남자 : 이름은 뭐였어요?

여자 : 몰라 나도. 그런 모르고. 여기가 무슨 홀이었냐하면 옛날에 흑인말로 버스튼! 버스튼 클럽.

남자 : 건물이 훌처림은 안 생겼는데 새로 지었나 보다.

여자 : 새로 지었지. 새로 올렸지. 이 개조를 몇 번 했어.

남자 : 여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 : 여기도 홀이었어. 조그마한.

남자 : 흑인홀이었겠네.

여자 : 응. 여기가 클로바 클럽. 크로바. 여기 다 그런 거였어.

남자 : 이 골목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자 : 옛날 골목인데 여기가 저기 했었지. 또랑(도랑), 또랑!

남자 : 여기도 다 물 흘렀다고요?

여자 : 응! 현재도 물 흘러. 이거이거 덮어 놓은 거야. 현재도 흘러. 여기가 큰 저기 이 자리가 세탁소였어. 백조 세탁소. 여기가 꽃샘 클럽. 흑인 클럽. 꽃샘.

남자 : 클럽 같지 않은데.

여자 : 근데도 알아, 흑인들이.

남자 : 옛날에 카세트 LP방 하던 데는 어디?

여자 : 그게 뭘 소리야?

남자 : 판가게.

여자 : 판가게 하던 자리는 우리 오던데.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들어가.

좁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가방을 맨 뒷모습. 거친 숨소리.

남자 : 여기 옛날에도 다 집이었어요 이 골목은?

여자 : 포주, 포주들. 진돌아 시끄러. (개 짖는 소리. 왼편에 흰 타일 건물과 낮고 어지럽게 널린 전선줄.) 지 엄마 저기 가있어. 아파갔고 수술하고 저기 예담병원에. 응, 이게. 그냥 지나간다. 이게 주차장이 아니야. 옛날에 유-명한 흑인 클럽이었어 여기가.

남자 : 이름이 뭐예요?

여자 : 쏘 브라덜 클럽. 쏘우 브라덜 클럽. 그다가 또 스타 클럽으로 바뀌었어. 흑인 클럽이야. 흑인.

남자 : 근데 왜 허물었어요?

여자 : 아니 허물은 게 아니라 미군이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폐허가가 되는 거지.

남자 : 여기는? 여기도 뭔가 좀.

여자 : 여기 (골목 좌우로 너저분한 집기들. 오른쪽에 초록색 금색 대문집. 멀리 골목의 프레임된 시선 끝에 지나가는 자동차 브레이크등이 보인다.) 구멍가게였어. (흰 타일 외벽 2층 건물 앞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뒷모습)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홀이제 포주집으로 된 거지.

남자 : 옛날에 여기 이 골목에 사람 엄청 많았겠네.

여자 : 바글바글 바글바글 했어. (어두움 속에 어스름하게 밝아지는 길모퉁이) 여기는 흑인 골목이야. 백인이 와서 얼씬거리지를 못했어. 여기서부터 다 LP판. 판가게야. (개 짖는 소리. 걷는 사람 숨소리)

남자 : 가게 건물이 많이 바뀌었나보다. 입구가 안 보인다.

여자 : 아니 다 집을 지었으니까. 아 증말. 이거만 좀 덜 바뀐 거야. 이거만. 여기가 여기가 옛날에 막걸리집이었어. 이게 유-명한 막걸리. 우리 돈 없으면 여기 들어가서 막걸리 먹고 그랬어. 이루 와 봐. 이 건물, 이 건물에서 옛날에, LP판 파는 데였어. LP판. 여기가 무슨 클럽이었나면은 옛날에 나 처음 들어왔을 때, 나이가 어려서 들어와서 잘 몰라. 여기가 홀이었었어. 백인 홀. 백인 홀 하다가 여기 흑인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없어지고 태권도장이 됐어.

남자 : 여기가?

남자가 카메라의 시선을 돌려 건물 2층을 찍는다.

여자 : 여기 위애가 아니라. 그때는 단층이었어. 그때 70년도 60년도에는 단층! 단층이야. 2층이란 게 없어! 아까 거 히빠리하던 데 거기만 2층 있었어. 이게 태권도장이었어 그러다가 홀이 된거여. 여기도 LP판 파는 데. 난중에 그러다 홀이 됐지 여기가. 홀. 여도 홀. 이걸 내가 했지. 3년 했어. 3년.

남자 : 가게 이름이 뭐였어요?

여자 : 킹스 쿼이. 킹스 쿼. 이걸 내가. 그래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늙고 음악을 내가 좋-은 거 틀어주니까 음악 들으러 많이 왔어. 내가 원판을 많이 틀어줬거든.

남자 : 그 판들 다 어찌셨어?

여자 : 다 누가 뺐지.

남자 : 아깝다.

여자 : 다 뺐지. 지금 있었으면 그거 진짜 따봉이지.

남자 : 그때 틀었던, 기억나는 노래 있으세요?

여자 : LP 테이프는 몇 개 있어. 테프는. 그때 당시에 틀었던 테프, 내가 장사 하면서 틀었던 테프는 몇 개 있어. 진짜 진짜 저절로 흔들어져. 이게 이게 이거 봐봐 가지 말고 일로와. 언니가 여기서 했나 그래. 이 줄에서 LP판 가게를 했어. 그리고 그 언니 친구가 또 여기서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밑에서 술 팔아 주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주를 안 끼고 했기 때문에 큰 홀을 들어갈 수가 없어.

남자 : 그렇지 작은 것밖에 못하지.

여자 : 응. 작은 공간. (카메라를 뒤로 돌려) 그냥 또 일로가. 여기 골목이 유-명한 골목. 이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야.

남자 : 그래서 뉴욕이라고 그랬구나. 여기가 뉴욕거리구나.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조명이 깜빡인다,

여자 : 응. 여기가 뉴욕이야. 여기가 여기. 백인이 여기 들어 오면은 주머니 다 털리고 나가. 두드려 맞고. 실컷 두드려 맞고. 어떤 놈이 때렸는지도 몰라.

남자 : 그럼 백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자 : 그 언니 집 거기. 내 가르쳐 줄게 이제.

남자 : 지금 여기 절반은 비어있죠?

여자 : 다 비어있어, 다. (은밀하게) 이것도 비어있어.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남자 : 이 골목은?

여자 : 응. 여기도 홀 있다. 근데 여기는 백인 홀이었어.

남자 : 바로 옆 골목이었네. 흑인 백인.

여자 : 들어가 봐. 들어갈 수 있으면. 응. 무서워.

남자 : 여긴 큰 데였네?

여자 : 여기도 홀이었어.

남자 : 이름이 뭐였어요?

여자 : 잊어먹었어. 나 잊어먹었어.

남자 : 여기 백인거리요?

여자 : 백인 홀.

문 덜컥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골목에 퍼진다.

남자 : 여기도 옛날에 무슨 가게였을 것 같은데.

여자 : 막걸리집.

남자 : 의외로 막걸리집이 많았네.

여자 : 응, 많았어.

남자 : 막걸리를 미군들이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자 : 먹었어. 그럼. 여기가 오아시스. 오아시스였던 거 같아. 이 건물인지, 저 건물인지. 지금은 바뀌었지. 걸슨(겔은). 안에도 조금. 그 다 방 얻어가지고 아가씨들 살던 집이야. 포주. 여기도 색시집인데 다 망가졌잖아.

남자 : 기숙사 같은 거예요?

여자 : 미국 사람하고 동거하는 집이야. 쉽게 말해서. 동거.

남자 : 여기도?

여자 : 여기는 홀이 아니라 카바레였어. 한국 사람. 여기는 이제 힙동어들 오는 클

럽. 파라다이스 옆에. 여기 산장.

남자 : 산장은 옛날부터 산장이네.

적막을 뚫는 개 짖는 소리.....

여자 : 그냥 그 건물 그대로. 여기가 유명한 파라다이스집이여. 이거는 문. 일루도 들어가고 열로도 들어가고.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여. 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지. 안채. 아가씨. 여기는 의정부서 포돌이 나온다 하면 벌써 예전에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 여가 파라다이스 여기까지. 그리고 다 양복점이었어 양복점. 여기 파라다이스 홀. 유명한 파라다이스! 아까 그거는 안채. 여기서 손님 끌고 글로 들어가는 거.

남자 : 이거는요? 파라다이스 옆에?

여자 : 이거는 옛날에 구멍가게였어. 애들. 미군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러는 데. 다 미군 물품 파는 거여.

남자 : 여기 다방은 뭐예요?

여자 : 옛날부터 있었어. 장미다방. 옛날에 장미다방이었는데. 여기 다 다 옷가게 양복점 그거 무슨 판? LP판 파는 데였어.

남자 : 사진관은 없었어요?

여자 : 사진관? 사진관이 어떤 거였나 하면은 여기 설비하는 데 있지. 이거. 이게 사진관이었어. 이거 하면서 아저씨가 미군 부대 다니면서 미군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남자 : 그러면 그 아저씨가 계속 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 돌아가셨지. 그리고 미장원 미장원 미장원 미장원. 그냥 다섯발자국 가서 미장원. 그냥 다 야.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야. 옛날에 여기도 홀이었어. 왜 더 가고 싶어?

남자 : 다음에 가요.

남자와 여자가 다시 걷기 시작한다. 둘의 실루엣이 골목 끝 차도에서 비추는 빛 속으로 사라진다.



구술 생애사 & 사물과 공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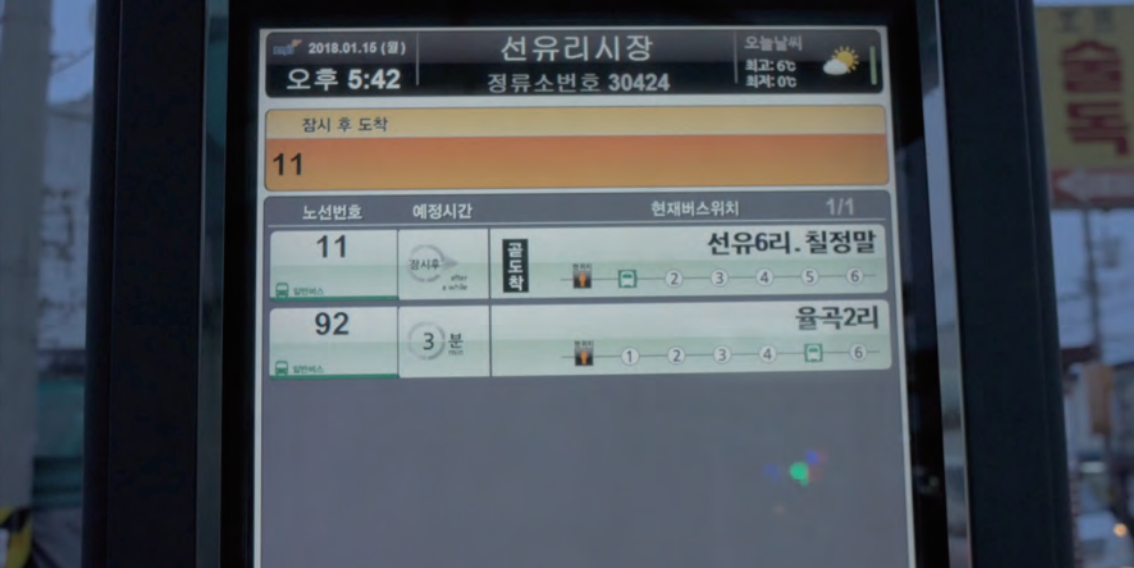
공간 & 이미지 맵핑 아카이브

기록적 접근을 통해 선유리의 공간과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를 다시 창작물로 변환/구성하는 맵핑 아카이브 작업은 각각 필름(장지남)과
미술(김진주)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장지남, 『 필름, 선유리는 매일매일 』 , 2017.

PART 1 경계의 마을
PART 2 숨어 산 사람들
PART 3 B, 기억의 여정

선유리 공간과 이미지의 지리적 접근이자 기록적 결과물인 이 영상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경계의 마을’은 한때는 성행했으나 이제는 쇠락한 기지촌, 새로 들어선 산업 단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새로운 경계가 교차하는 선유리의 지금, 과거, 미래의 풍경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인 '숨어 산 사람들'은 선유리의 구성원이 바뀌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살아야 했던 남아 있는 존재의 역사를 고백한다. 마지막 영상 ‘B, 기억의 여정’은 기지촌 여성의 삶, 기억, 마음 속에 부유하는 시선을 선유리 골목 풍경을 따라 헤집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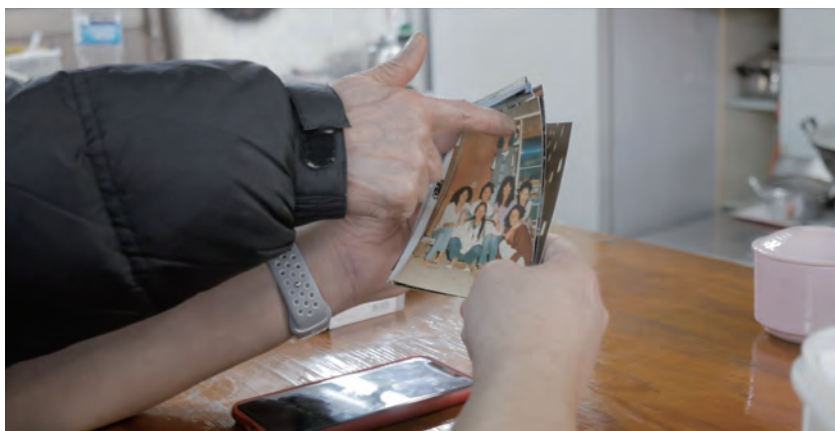
Part 1. 경계의 마을, 2017.

HD/Color, 4분 6초

파주시 문산을 선유리는 파주의 신도시 지역(교하, 운정, 금촌)을 제외하고 파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다. 현재 인구 2만 명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유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주해온 공장노동자들과 전방 근무자들의 군인가족들이다. 하지만 20년 전, 선유리를 관통하는 큰 길(현재 사임당로)를 따라 미군기지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 오웬, 캠프 RC4가 존재했을 때의 인구구조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마을 사람들의 구성이 바뀌면서 예전 사람들이 살던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공간 사이에는 새로운 경계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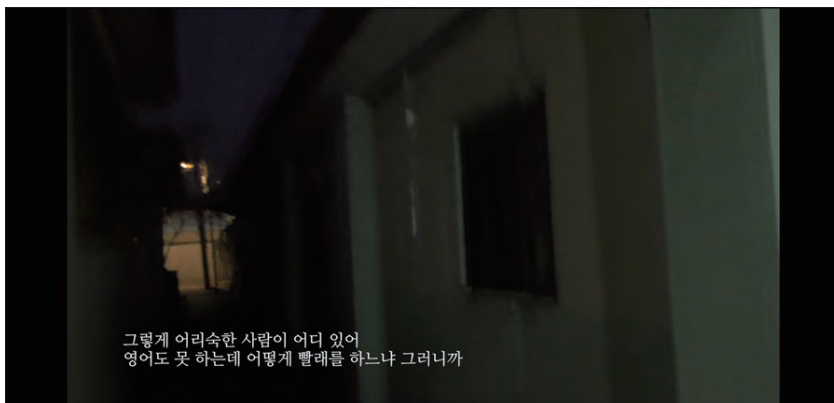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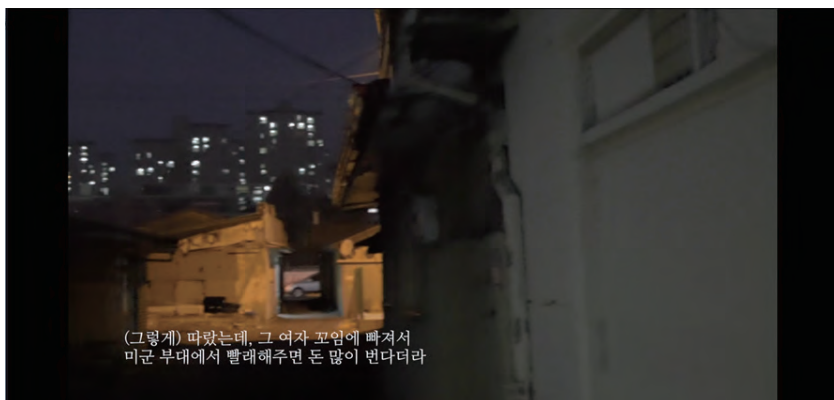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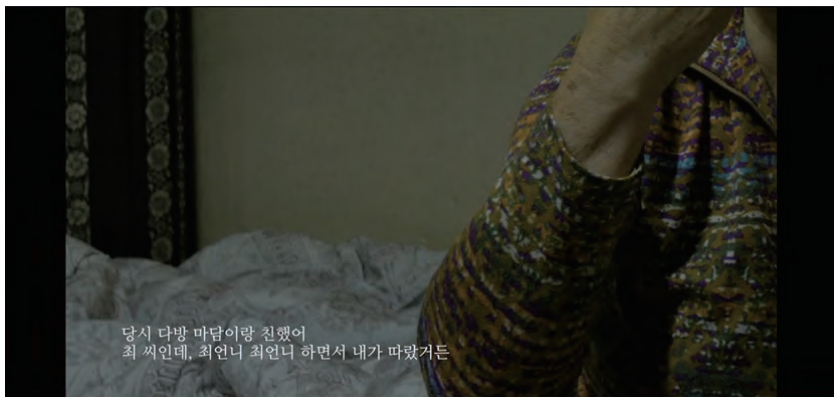
숨어 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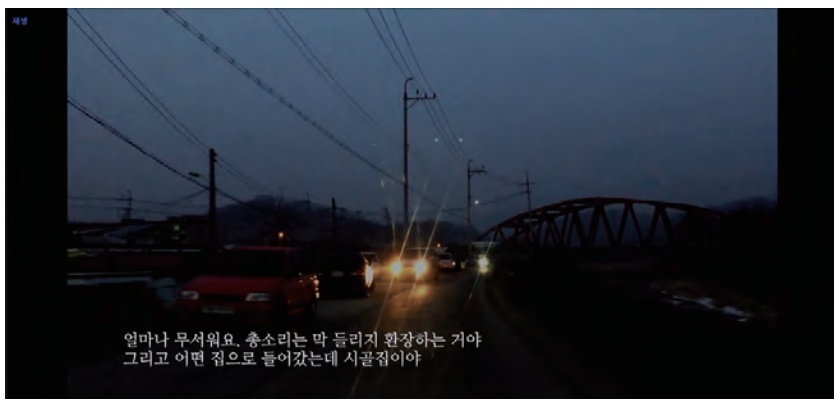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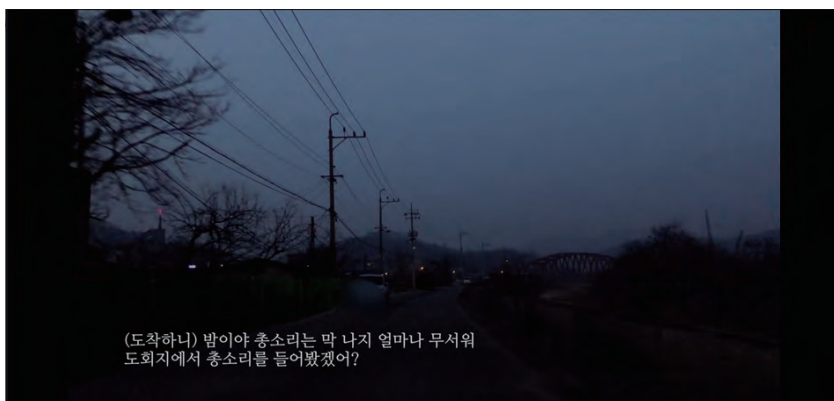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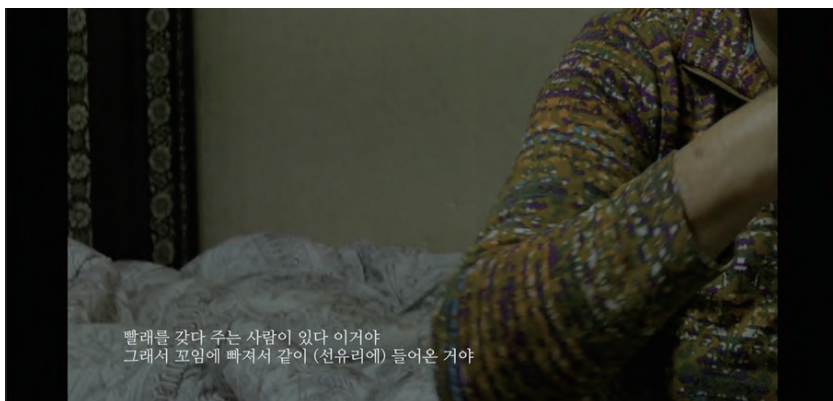
Part 2. 숨어 산 사람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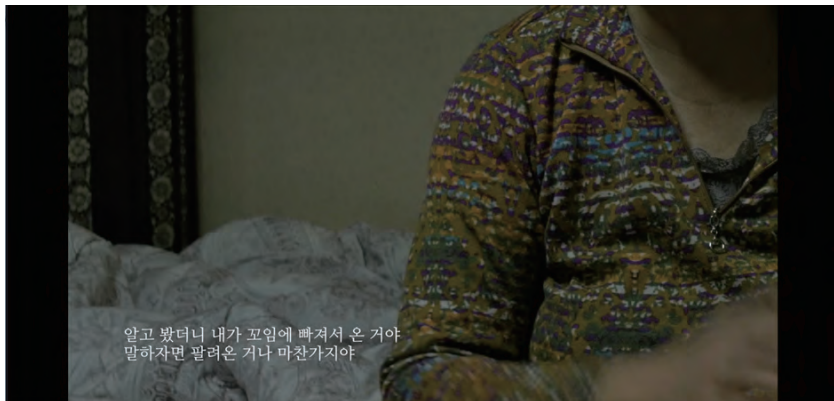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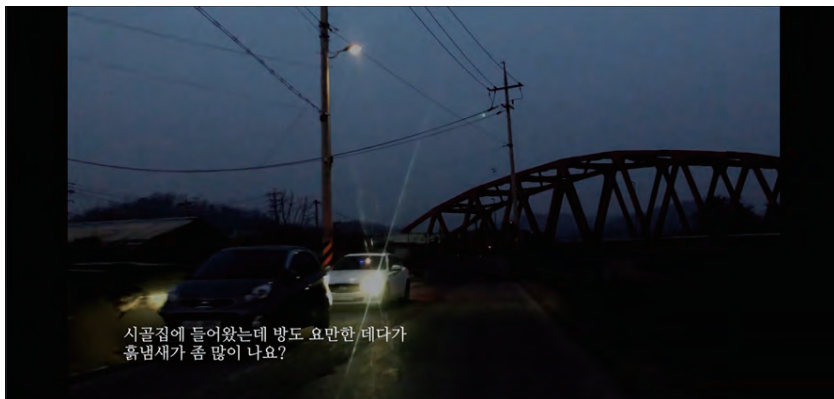
HD/Color, 10분 4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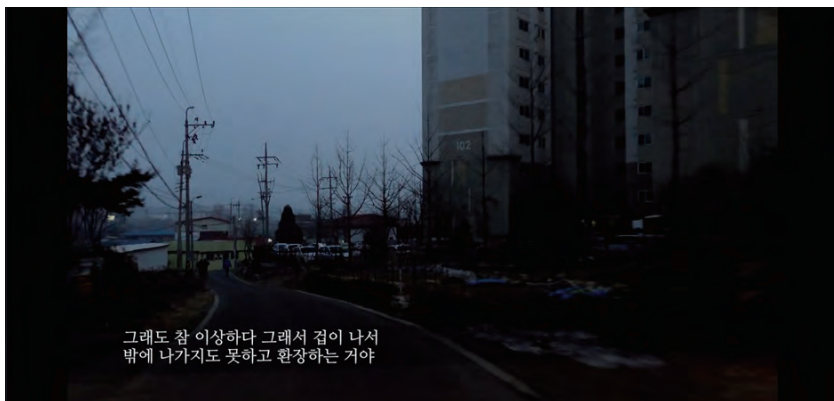
선유리의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살아가야했던 존재들. K는 1979년 친구의 피임에 빠져 선유리 기지촌에 팔려왔다. 처음에는 도망을 갔다가도 금새 다시 잡혀왔지만, 세월지나 선유리 뒷골목에 작게 낸 그의 술집은 K 마미(Mommy)를 찾는 사람들의 동선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게 싫어 마을 사람들과는 마음의 담을 쌓고 지내왔다. 또한 사람들을 피해 숨죽여 살던 기억만큼 강렬한 기억은 총알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갔던 선유리의 무시무시한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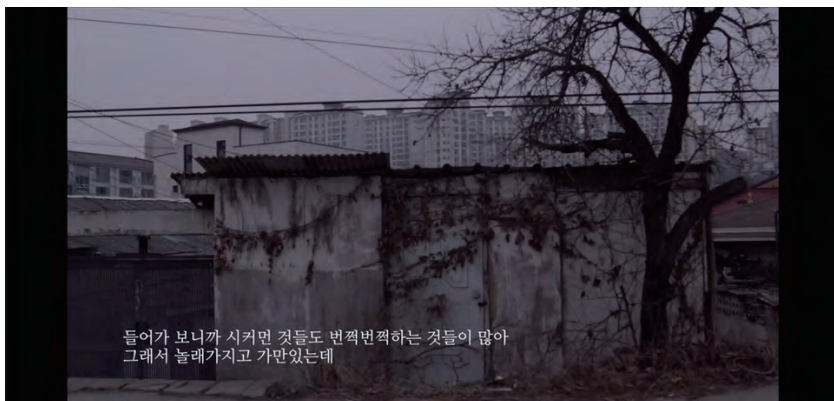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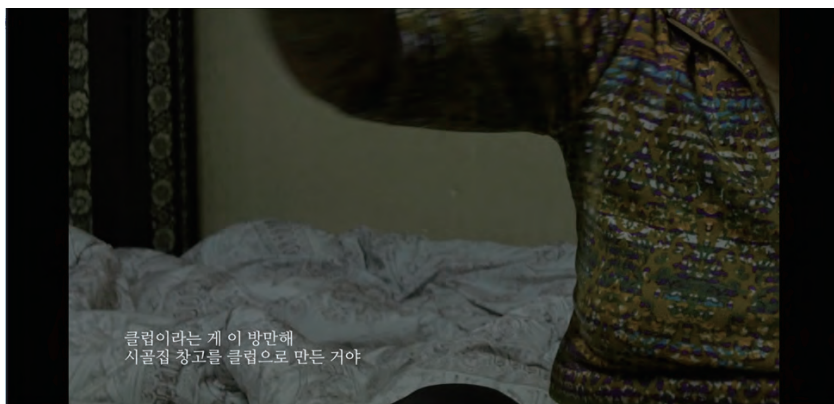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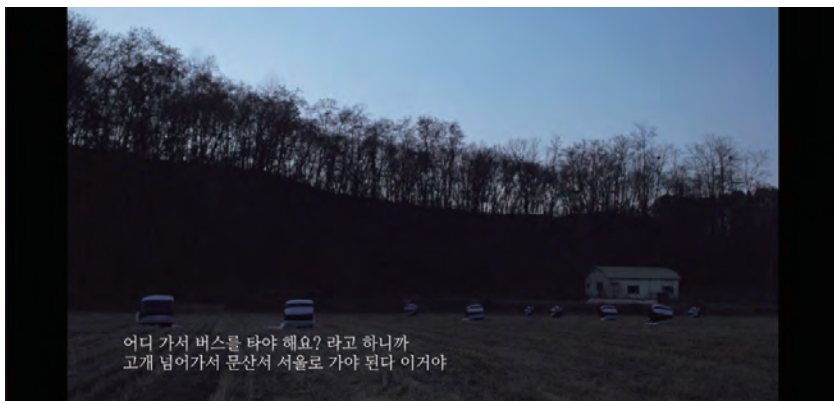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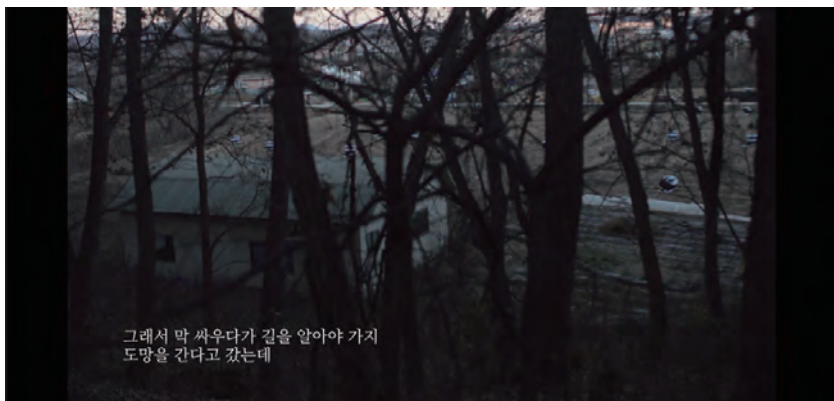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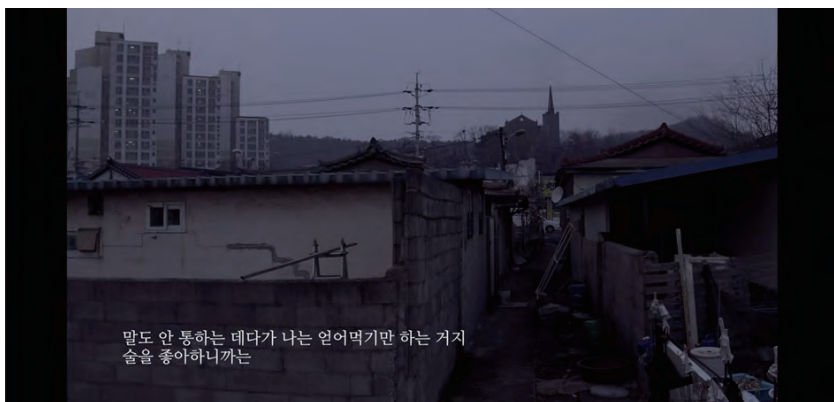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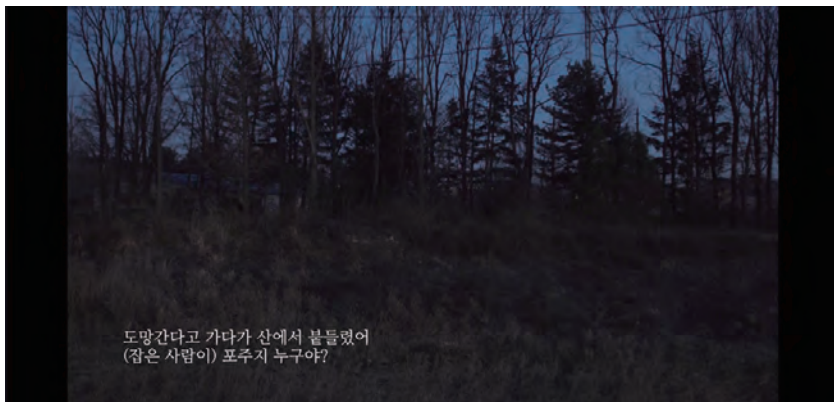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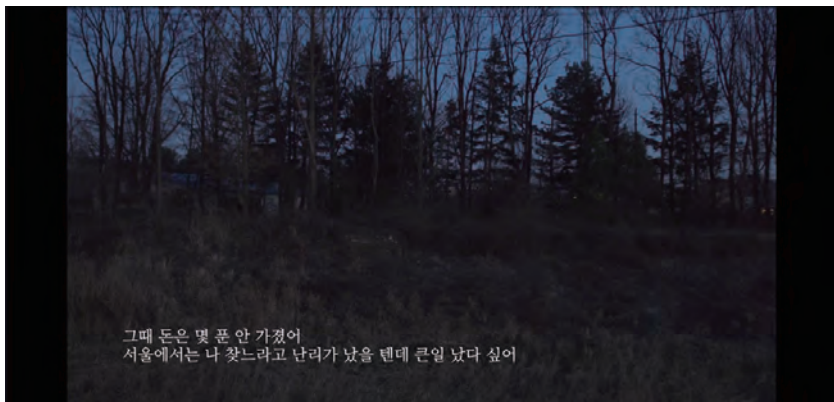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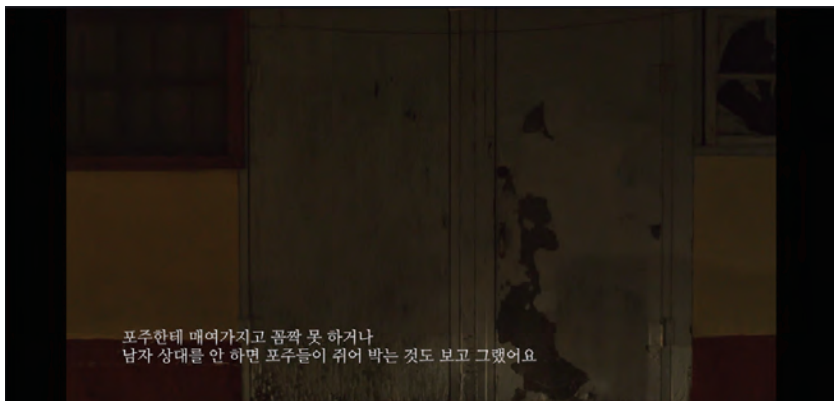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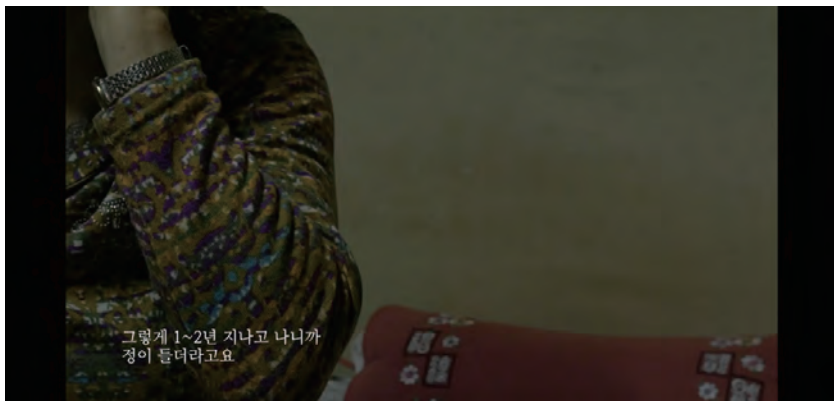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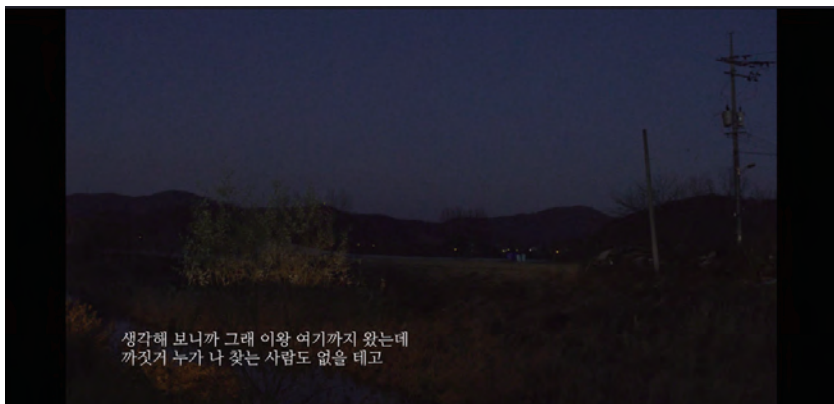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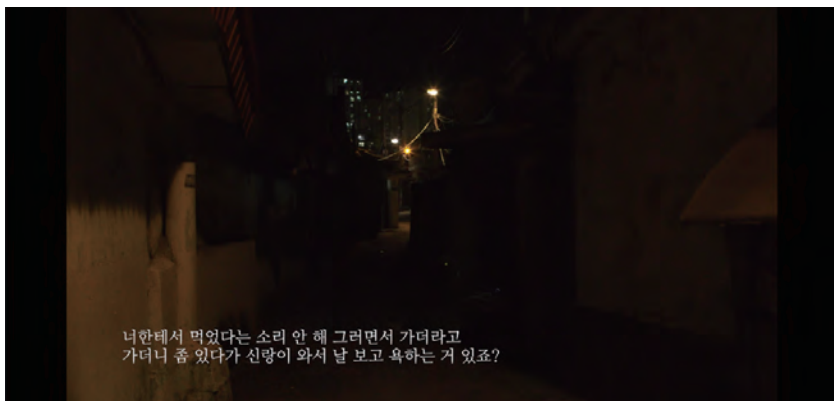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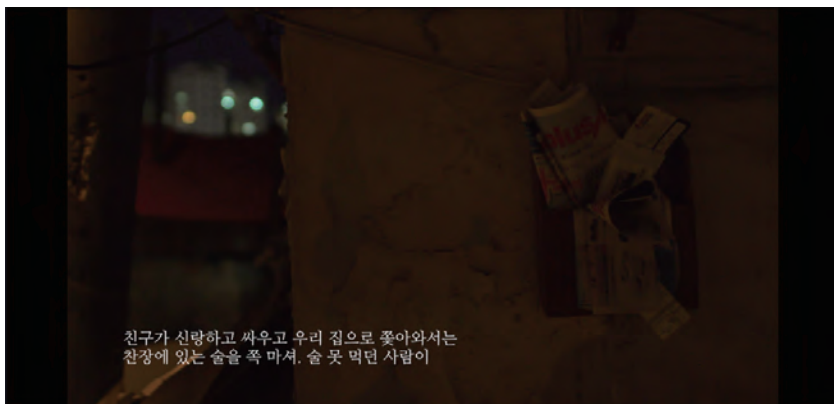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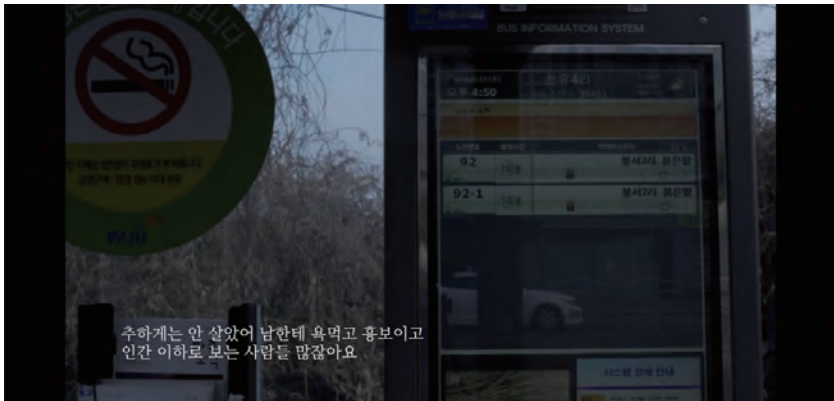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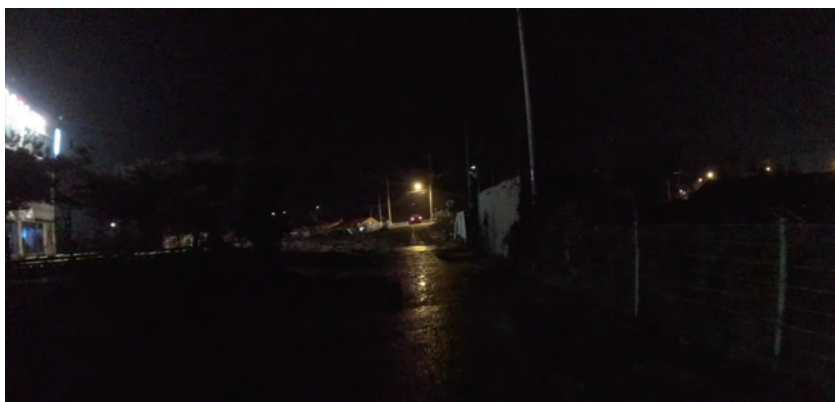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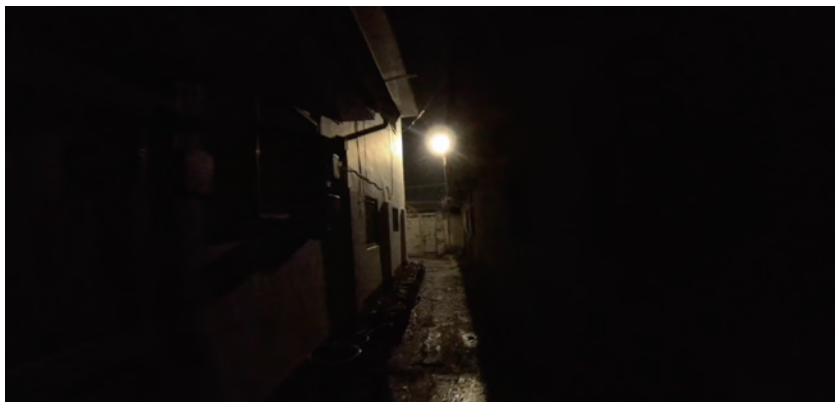
Part 3. B, 기억의 여정, 2017.

HD/Color, 3분 22초

“나 좀 미친 여자 같았어.” 30년 전, B는 매일 밤 선유리의 골목을 헤맸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잠에 들 수 없었다. 손님이 남긴 술에 취해 대충 가게 문을 닫고는 집으로 향하던 길. 전봇대는 그의 친구였다. 친구와 속 깊은 얘기도 나눴다. 아니 신세한탄이 맞다. 이 지긋지긋한 동네.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이 미웠다. 여기는 내가 처음 선유리에 들어와 일 했던 곳. 여기는 내 돈을 떼어먹고 갔던 포주가 있던 곳. 여기는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던 곳. 그렇게 술에 취해 한참을 전봇대를 껴안고 중얼거리던 그 길. 30년 전 기억의 길을 따라 시선은 다시 부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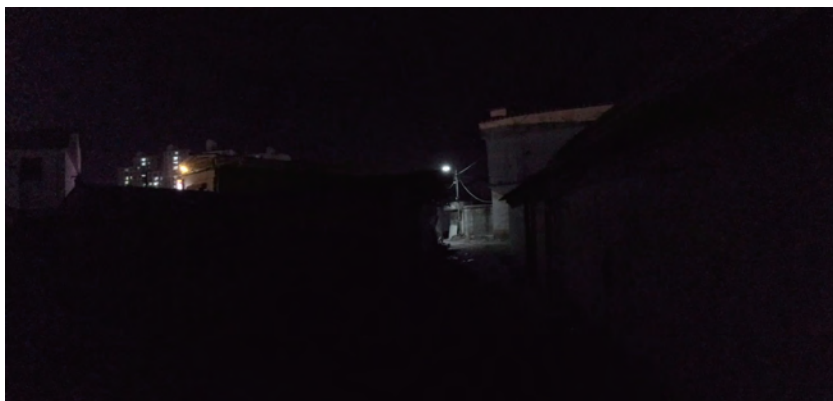












김진주, 『선유리는 매일매일 - 집, 길, 그리고 사물』, 2017

Layer 1. 황금 단어집(The golden wordbook), 2017.

Layer 2. 미등록의 길, 2017.

Layer 3. 투명-국가적-사물, 2017.

<선유리는 매일매일>을 통해 발견한 선유리의 기억과 기록을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한 일종의 아카이빙 지도이다. 이 지도는 선유리의 모습을 평면적으로 그린 것에서 탈피한다. 기본적인 지리적 형상 위로 등록되거나 등재되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정보들을 겹쳐 놓는다. 관객/방문객은 지도에 그려진 정보를 따라 흐르며 시각과 비시각적 감각의 교차 속에서 선유리라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Layer 1. 황금 단어집(The golden wordbook), 2017.

구술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기지촌 여성의 단어들 모음집

Layer 2. 미등록의 길, 2017.

클럽, 판가게, 막걸릿집을 잇는 기지촌의 변화가, 그리고 지금은 어두운 귀가 길이 되어버린, 지도에 없는, 그러나 수년간 만나지 못한 내 친구의 집과 이웃을 찾아가는 선유리 골목길 지도

Layer 3. 투명-국가적-사물, 2017.

기지촌(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심리적 요소를 감각화하는 사물들의 지도

영어

커피

햄버거

화장

이주

클럽

파티

약

사진사

임진강

겨울

눈

도랑

독서울

앞치마

기름때

바

전화기

늪은

똥강
아지

엄마

마음

자식

짝사랑

정

배고픔

평생

새벽

2시

동네

저 위

샤워

잠

불면

뒷산

다리

뚝방

하늘

집

자이
언트

RC4

웬웬

스테
레오

꽃샘

불꽃

신탄진

동두천

선유리

턱거리

오산

왜관

결혼

보증

주민
등록

읍사
무소

술

장교

백인

여자

흑인

Folger

Max
well

MJB

하우
스쿨

단 내

요양원

밀가루

뽕얇게

반죽

주사기

탄불

현상소

설탕

러미라

랄라

분홍색

코데인

천원

500원

장판꽃

옥슨

열아홉

스물

튀김

공장

돼지

푸리나

구멍

백세
인생

소풍

나무

스피커

매달아

노래
자랑

1등

돈보기

선그
라스

눈물

싱크대

냄비

부서진

손잡이

술고래

진돌이

LP

미운
사랑

화류
춘몽

판가게

홀

포주집

아가씨

쏘브
라텔

스타

뉴욕

힐

파라

다이스

장미
다방

잡화점

양복점

미장원

-5°C

색시집

들기름

nervous

속장갑

자주색

고독

검정색

백설기

팔죽

북한

JSA

제세

판문점

총소리

밤

무서움

여유

없음

꽃

비틀
어진

your

밥솥

라스트

찬스

죽

평생을

헤어져

살아

오케
바리

육수

믹스

텍사스

스타일

발효

맛

안개

낭만

이상한

생각

멋쟁이

단팔빵

아흔

내년

콩

치즈

마요
네즈

PX

용산

만가대

뉴스

TV

귀순

땅굴

엔젤

숨

흥

얼굴

부산

가족

엄마

남동생

여동생

아들

딸

손녀

손자

동거인

아저씨

아줌마

양엄마

시래기

스테끼

할어텍

카브

탱크

통금

새꼬
로미

흙처간

그릇

젓가락

소쿠리

소주잔

참새키

친선

보석함

트로피

보급품

창고

기차길

도둑

여행

걱정

봄

웃웃

미군

한국군

철수

기대

실망

군인
가족

히로
시마

원폭

이주

마을
회관

결혼식

영등포

쇼핑

국제
전화

채반

휴지

종이
봉투

셔터







37.865698, 126.805312



37.868659, 126.808299

마을 아카이브 제안

지금까지 <선유리는 매일매일> 작업을 통해 만난 선유리의 기지촌 여성 대부분은 독립/독거 생계를 유지하는, 여전히 노동하는 노년의 여성들이 많은 편이었다. 이들에게는 문화예술적 수혜자 프로그램 이전에, 복지/휴식/건강 등 돌봄의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혹 기지촌 여성 조력 기관의 활동을 '사람 장사'로 비판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기지촌 여성을 돕는 기관과 활동가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이들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서 마을 아카이브 활동의 접근은 기지촌 여성으로 주목 받거나 단일화되는 것보다는 사람/인간/주민으로서의 공통점 찾기를 지향해야 한다. 한편, 마을 아카이브라 했을 때 당연히 생각되는 전체 주민 대상의 접근이 기지촌 마을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향후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해서는 선유리 내 다양한 주민 구성 가운데, 이주 여성, 어린이, 청소년 등과 기지촌 여성의 만남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마을 아카이브와 별개로, 선유리 S분식은 집기, 공간, 관련자 구술 등 역사적 보존 가치가 충분한 공간이다. S분식의 운영자 나이가 매우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마을박물관 혹은 경기도 근현대사 기록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수집/이관 제안 또는 프로젝트 기획을 조심스럽게 추구한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만난 선유리의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적 활동을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되물었다. 연이은 문화사업이나 작품 기획은 당장은 어렵겠다고 어렵קות이 답을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나이든 이 여성들이 아직도 한 달에 한 두 번 목욕탕을 쉼겨가는 깔끔한 생활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간간히 잘 사는지 걱정도 되고 말 들어줄 친구가 그리워 한참은 어린 내게 걸려온 긴 통화에 마음이 몽클해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예술가보다는 재가노인복지사가 더 반가울 수 있겠구나 싶은 단념이 좀 이르지 않았던지 싶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선유리의 오래된 목욕탕 골목에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 여성들과 마을 공동체의 한 공간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을 기대한다.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파주 선유리 : 선유리는 매일매일

기 획 경기문화재단
총 괄 박희주 / 문화예술본부장
책 임 허윤형 / 북부문화사업단장
담 당 장희주 / 북부문화사업단
김지연 / 북부문화사업단
업무지원 김지옥 / 북부문화사업단
추진주체 김진주 (총괄기획), 장지남
참여스텝 강민지, 강민아, 이진실
협 력 텔레포트, 크루

사진제공 김진주, 장지남
디 자 인 이준규 jk.or.kr
인 쇄 인타임

발 행 일 2018. 8. 29.
발 행 인 경기문화재단 설원기 대표이사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주 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연 락 처 031 - 231 - 7200
팩 스 031 - 236 - 3708

본 책자는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기록과 공유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